

주중광, 허지영 부부 동문 모교 약학대학에 2백만 달러 기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주중광(약대 60), 허지영(문리대 66) 부부 동문이 모교에 주식으로 2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현재 서울대 조지아주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허지영 회장과 부군 주중광 박사는 지난 8월 본인들의 주패밀리재단에서 모건스탠리의 주식 2백만 달러를 찰스스왑을 통해 서울대학교에 기부하고(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을 통해) 9월에 모교로 자금이관과정을 마쳤다. 이 기부금은 미주지역 동문들의 모교 기부금 역사상 가장 큰 기부액 수로서 전액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재건축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정됐다.

주중광, 허지영 동문은 기부레터를 통해 "서울대 약학대학이 생의학 연구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한 대학으로 인정받는 큰 성취를 이룬 것을 동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대 약학대학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시설을 더욱 개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건축 기금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라고 기부사유를 밝혔다.

주중광, 허지영 동문은 또 "약학대학에 특별한 기부를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의 지도와 노력으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생의학 연구분야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교는 성낙인 총장이하 (발전기금) 관계진들이 주중광, 허지영 동문의 거액기부에 크게 고무돼 미주지역 동문들의 모교사랑과 기부참여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서울대 약학대학도 그동안 주중광, 허지영 동문 부부가 약학대학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 왔으며 이번의 거액기부에 놀라움

과 함께 큰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주중광, 허지영 동문 부부는 이번 2백만달러 기부와는 별도로 지난 6월 평의원 회의에서 성낙인 총장 방문에 때맞추어 약학대학과 문리대 화학과(Dept. of Chemistry)에 선한인재 장학금(만만한 기부)과 강의지원 기부금(lectureship fund)을 약정하고 8월 8일 3만 달러를 수표로 기부했다.

주중광 박사는 평생을 학술연구와 발명, 발견에 헌신한 저명한 과학자로서

314편의 논문발표와 함께 53개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클레부딘(clevudine) 발명에 큰 역할을 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몬고메리상(John Montgomery Award), NIH 메리트상(NIH Merit Award), 홀트기념강좌상(Holt Memorial Lecture Award) 등을 수상했다.

주중광 박사는 부인 허지영 동문과 함께 주패밀리기금(Chu Family Foundation)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부와 지식의 사회환원에 앞장 서 왔고, 주중광-허지영 장학금으로 미국과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후원해 왔다. 2015년에는 모교로부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사제공: 김인중, Director, 서울대 미주재단 LA 사무소]

남가주 동창회 비숍 행사 성황리에 개최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Labor Day 연휴를 맞이하여 남가주 총동창회 가족 캠프 행사가 비숍에서 개최되었다. 200여명의 동문들과 친지, 가족 여러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도시의 소음과 공해를 떠나 대자연이 경관을 이루는 비숍 일대를 두루 관광하며 우애를 다졌는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 9월 2일 (토)

오후 5시에 Milpond Picnic Area에서 상

대 동창회(권희재 회장, 상대80) 주관으로 BBQ Picnic이 있었다.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의 인사와 참가 가족 동문 소개에 이어 다음날 행사안내와 Activity group 담당소개가 있었다. 또한 김인중(대외협력위원장, 농대 74), 양수진(서기, 간호대 80), 이상실(간호대 88) 동문이 노래와 기타 반주로 싱어롱을 했는데, 단과대학 별 합창과 함께 온 가족들이 "만남", "친구여", "모닥불", "두개의 작은 별" 등을 다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문들의 노랫소리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퍼져 나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다. BBQ 파티가 끝난 후, 오후 8시 반에 뒷풀이가 있었는데, Creekside Inn을 옆에 끼고 흐르는 시냇가에서 20여명의 동문들은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9월 3일 (일)

A. 아침 8시

1. 낚시팀: Lake Sabrina에서 새벽 낚시를

즐겼는데, 이종권(상대 84) 가족, 송두일(상대 82) 재무국장 가족 등 10여명이 참가하였고, 송두일 동문의 딸 Alice song이 큰 메기를 낚았다.

2. 하이킹팀: 등산팀 40여 명은 출발지인 노스레이크 주차장에서 모여 왕복 5.5마일 라마르크 레이크 등정에 나섰다. 산천을 즐기기에선 충분히 청명한 초가를 날씨였다. 해발 8천피트 고지에서 출발한 등산팀은 2시간 반에 걸쳐 절경의 시에라 네바다 산줄기를 올라 (p 10으로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캠페인

2017년 구독료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서정화 (법대 55)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

농촌지역의

국제화와 다문화 현상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해 한민족이라는 강한 동질감을 유지해 왔으나 국제화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섞이기 시작했다. 아시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흑인 화이트칼라 노동자, 금발의 백인 여성 등 이제 다문화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2017년 현재 한국 사회는 국제이주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증가로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격화 중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도 지난 15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은 2006년 91만여 명에서 2014년 12월 말 국내체류 외국인 170만여 명, 결혼이민자귀화자 30만명 등 약 200만여 명(전체 4%)의 외국인이 국내 거주 중이다.

다문화의 발생 원인은 국제화, 세계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우리나라 농촌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신부의 증가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추세를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취업자 비율은 63.9%에 이르며, 2015년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량 더 높은 수치다.

농촌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신부의 증가 원인은 1970년대 이후 농촌의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농촌 총각들과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결혼이 진행되기 시작, 최근에는 전체 결혼의 10% 이상이 국제 결혼이다.

또한 외국인과의 교류 증가로 2000년대 이후, 학업이나 사업을 위해 우리나라로

움 등으로 인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증가 측면에서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주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해외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는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다. 최근 곳곳에서 문화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폭동, 소요, 시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이민자통합정책이나 다문화정책이 전개되고, 각 지방에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취학을 위한 교육센터(CASNAV)’를 설치하여 프랑스어 학습 지원과 아울러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프랑스 다문화 정책과 교육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가기 위한 한국 다문화주의

구현 원리로는 인권, 민주주의, 개인성, 사회 정의

등의 보편적 원칙하에 개별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

할 것이며, 또한 소수자 역량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인권법, 차별 금지법, 다문화 교육 진흥법 등

의 제정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와 시행이 뒷받

침되어야 할 것

프랑스, 캐나다, 일본의 다문화 정책

다문화 사회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와 풍요롭고 창의적인 문화를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문화 간의 충돌,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 외국인 집단과 내국인 집단 간의 일자리 경쟁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은 언어 장벽, 사회적 편견,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

지는 주류 문화에 동화(assimilation)시키려는 정책을 썼으나, 현재는 각자 특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합(integration)과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mosaic) 사회를 지향한다.

일본의 다문화 가족 시책 특성은 ‘언어’를 집중 지원해, 사회적응 출구를 찾게 한다. 아이치현 나고야시 호우세이 아파트 단지 1층의 공용 공간에는 ‘らくらく日本語 教室(편안한 일본어 교실)’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다. 이곳은 지역 비영리단체(NPO)인 도카이(東海) 생활지원센터가 운영하는데 NPO 활동가, 대학생 자원봉사자 6명이 지도한다. 일본의 다문화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1주일간 지역 학교를 통째로 빌려서 ‘びよびよ(삐약삐약)’ 클래스로 미리 학교를 다녀보고 실제로 입학을 했을 때의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고 있다. 나고야시의 2차 플랜(2017~2021년)에는 사회 정착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돕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된다. 일본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시민사회 주도로 ‘더불어’를 강조한다. 관 주도보다 지역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효과적이란 점이다. 이처럼 프랑스나 캐나다, 일본 모두 다문화인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상의 외국 사례를 토대로 국내의 대응과제를 찾아보면 다문화주의 정책 방향은 기존의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 가족정책의 틀을 넘어 사회 제도 및 관행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요청된다. 언어 장벽과 심리 불안 등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균등한 기회 보장과 참여를 통한 사회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가기 위한 한국다문화주의 구현원리로는 인권, 민주주의, 개인성, 사회정의 등의 보편적 원칙하에 개별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소수자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법, 차별금지법, 다문화교육진흥법 등의 제정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와 시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윤상래 (수의 62)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서울대인이 모래알인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해변을 자주 찾았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줄곧 모래성을 쌓고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곤 했다.

동창회에 참여한 이후 “서울대 동문은 모래알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이는 모래알처럼 많다는 뜻보다는 아이들이 쌓고 부수던 모래성처럼 단단히 뭉칠 수가 없다는 말일 것 같다. 이제 회장 취임을 선언한 지 2달, 동창회를 운영하는 가장 큰 즐거움의 하나는 임원님들이 열심히 동창회 일을 돕고 지원하시면서 이를 통해 동창회 운영이 훨씬 수월해지고 활발해지는 것이다. 임원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더해 또 다른 큰 즐거움이 있는데 이제 받기 시작하는 동문의 서신이다. 회비를 정성껏 보내주시는 동문께 감사함은 물론, 격려의 글을 보내주시는 동문의 서신들을 통해 이들의 동창회를 사랑하는 끈끈한 정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우리 동창회를 사랑하시는 동문이 이처럼 많은데 왜 서울대인을 뭉칠 수 없는 “모래”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아마도 그것은 ‘서울대인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한 외부인의 질서가 섞인 표현일 것이다.

설령 서울대인이 “모래”라 한들, 우리 임원들의 희생적인 봉사는 곧 시멘트와 같다고 믿는다. 거기에 끈끈한 동문의 정, 곧 물과 같은 그러한 것이 합쳐지면서 우리는 콘크리트가 되어 버린다.

콘크리트는 단단한 건물을 건축하는데 쓰이는 기본 자재이다.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Freedom Tower)는 무려 15만 큐빅 야드의 콘크리트를 사용해 지어졌다. 나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서울대인이 콘크리트처럼 뭉쳐져 이갈이 견고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그려 보게 된다. 이제는 “서울대인은 모래와 같다”라는 말을 잊어버리자. 그 대신, “서울대인은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하다”로 바꾸어야 함이 마땅하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지난 2001년 6월 회보에 실린 강영빈 박사님(문리대 58입)의 글을 인용해 본다. “서울대 동창회는 우리 삶의 뿌리이다.” 루이지애나 시골에서 평생을 개업 의사로 지내시면서 “Gentleman Farmer”로 자처하며 봉사하셨던 강 박사님의 이 말을 기억하자.

우리가 동문과 모여서 어떤 뜻이 있는 일을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삶의 뿌리’, ‘서울대 동창회’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빈손으로 고향을 멀리 떠나와 이 광활한 대륙을 새 고향으로 삼고 살아왔다. 언어 장벽, 문화 풍습의 차이 등으로 모두 어려운 생활을 겪으며 개척의 삶을 헤쳐왔다.

나의 경우는 그 어려울 때마다 ‘서울대인’임을 각성하고, 그에 의지해 용기 백배하여 모든 난관을 이겨 왔다. 서울대인의 마음으로 노력하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이는 필시 나만의 믿는 바가 아닐 것이다. 수많은 우리 미주 동문이 ‘서울대인’임을 항상 의식하고 그 근본정신을 지키면서 모든 난관을 극복했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생존을 위한 경쟁(Struggle)이다. 이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쟁 속에서 미주동창회를 우리의 인생과 연관시킨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한 지혜와 경험을 접하게 하며, 더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뉴잉글랜드 동창회 곡세홍 박사님(미주동창회 IT 공장, Raytheon computer 전문가)이 언급한, “우리는 이 큰 땅에서 옛것을 벗고, 광량하게 전개하여 있는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 서 아무도 상상조차 못하던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진정한 보람이다!”라고 한 말처럼, 서울대인이 그 역량을 동창회를 통해 함께 모을 때 ‘아무도 상상치 못하던 일이 이 ‘광량한 땅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 이는 곧, 우리 동창회와 서울대인의 미래를 지향하는 예언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백 순 (법대 58)

미국 경제의

명과 암

금년 들어 미국의 재정금융경제를 대표하는 뉴욕 증권시장이 볼 마켓을 들어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미국 실물경제의 호황을 보여 주고 있어 미국경제계에 경제낙론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미국 실물경제의 어두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명 (밝은 면)과 암 (어두운 면)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첫째 밝은 경제면은 중간가정 (Median Household)의 소득이 최근 2년 연속 8.5% 올라 기록적인 \$59,039로 상승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인구조사국 (Census Bureau)이 발표한 “소득과 빈곤” (Income and Poverty) 보고서에 나타난 지표이다. 3분의 2 이상의 미국인들이 근래 “중류 계층”에 속한다고 자부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갤럽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밝은 경제면은 평균 미국가정이 기록적으로 년 \$2,900 이상의 여흥비용 (Entertainment Expense)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미국 노동성이 발표한 통계로 미국의 평균가정들이 그만큼 생활의 여유가 늘어났다는 증표이다. 생활의 여유가 늘어나므로, 집에 갇다든지 네프렉스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디즈니 월드에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여흥 활동에 가계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표이다.

셋째 밝은 경제면은 미국의 빈곤층이 최근 2백5십만 명이나 줄었고, 또한 푸드 스탬프로 생계를 연명하는 미국인이 2013년 4천8백만 명에서 2017년 5월 4천1백5십만 명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 (미국 인구조사국)가 책정한 빈곤선은 4인 가정 기준으로 \$24,563으로서 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인이 2015년 전체인구의 13.5%이었던 것이 2016년 12.7%로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미국 농무성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의하면 푸드 스

템프 (보충영양보조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를 받는 미국인의 수가 지난 4년 동안 무려 6백5십만 명이나 줄었다는 좋은 소식이다.

빈곤계층의 감소와 푸드 스탬프 수령자의 축소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증표로서, 인구조사국은 2009년에서 2016년에 무려 1천4백만 명의 일년 내 상근근로자가 증가했다고 측정하고 있다.

중간가정 소득의 인상, 여흥 비용의 증가, 그리고 빈곤층의 감소와 푸드 스탬프 수령자의 축소 등등은 미국 실물경제의 밝은 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어두운 면이 있음을 묵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나의 어두운 경제면은 부익부로 드러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현상이다. 즉 년 1십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상 중류계층 (Upper Middle Class)이 1990년 19.4%이었던 것이 2016년 27.7%로 크게 증가한 사실이다. 그만큼 부유층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둘의 어두운 경제면은 년 소득 3만 달러에서 8만 달러를 버는 중류계층의 유흥비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밑바닥 20%에 속하는 가정의 유흥비를 오히려 줄여 들어 유흥비 지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셋의 어두운 경제면은 빈곤계층과 푸드 스탬프 수령자의 감소도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비롯한 소수인종에게는 오히려 증가하는 불평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소득인상과 소비증가, 그리고 빈곤감퇴 등등 미국경제의 밝은 면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소득인상의 불평등, 소비증가의 불평등, 그리고 빈곤감퇴의 인종 불평등 등은 미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어두운 경제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새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 news@snuuaa.org / www.snuuaa.org

목 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주중광, 허지영 부부 동문 모교 약학대학에 2백만 달러 기부 / 남가주 동창회 비숍 행사
- 서정화 “농촌지역의 국제화와 다문화 현상”
- 기고: 윤상래 “서울대인이 모래알인가?” / 백순 “통일에 대한 단상”
- 기고: 신웅남 “법의 기원을 돌아보며...” / 이항렬 “대학 교육의 가치”
- 강연: 차상근 “정권마다 달라지는 국가 R&D 전략, 예산 집중 투자할 곳은 대학”
- 기고: 이재호 “느림의 미학” / 정태영 “플라톤의 착각”
- 커넥티켓 동창회 설립 기념 유시영(문리 68) 초대회장 인터뷰
- 기고: 박현렬 “바이칼, 문명의 빛일까” / 김태형 시 “나는 아직 모른다”
- 기고: 이지원 “AI Music” / 장소현 “위대한 여성미술가를 기다리며...”
- 지부 소식: 남가주 동창회, 남가주 공대 동창회
- 지부 소식: 뉴욕지역 동창회, 남가주 미대 동창회
- 지부 소식: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 샌디에고 동창회, 현해명 개인전
- 오봉환 동문 출판기념회, 하기환 동문, 서경석 동문 신간 출간
- 기고: 소광섭 “경락-프리모 순환계와 새로운 의학의 출현”
- 기고: 소광섭 “경락-프리모 순환계와 새로운 의학의 출현” / 손대홍 동문 / 서윤석 시 “진하춘 당수옥”
- 기고: 김용건 “가족여행”

- 최용완 “동아시아는 모든 문명의 어머니”
- 민일기 “Mt. Whitney 등반기: 거북이 승천기”
- 이준행 “가발과 함께 걸어온 나의 86년 인생 (Part 2)”
- 기고: 김광현 “황금비레 1:1.618...의 비밀”
- 기고: 이원택 “Totem 문화”
- 기고: 이종희 “내가 만든 공식” / 기고: 강신용 “멘토덕에 자란다”
- 연봉원 “뉴욕 변호사 시험 도전기”
- 연봉원 “뉴욕 변호사 시험 도전기”
- 만만한 기부 광고
- 종신이사회비 및 후원금 집계, 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 동창회비 집계
- 미주 동문 업소록
- 미주 동문 업소록, 평의원 회비 납부자 명단
-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 광고
- 광고



신응남 (농대 70)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법의 기원을 돌아보며...

21세기에 들어서, 세상은 더욱 좁아지고 국가간 유대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마스크를 통해 온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힘의 우위와 경제적 풍요를 가진 선진국들은 국제사회 리더로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하듯이, 각 나라, 각 사회의 단체 또는 개인들도 법을 지키고, 권력 분립, 평등권, 인권 등의 민주제도와 전통을 수호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세우고 지키며 개인들의 기본권리도 보호해 줘야한다.

기아와 필박과 공포에 시달리는 북한의 참담한 실정 그리고 그 위성자들의 국제사회를 향한 미사일 핵무기 시위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섰다고 보여진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법정신에 대하여, 그의 기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하는 공권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 도덕, 정의, 자연법과 관련되고, 또한 정치,경제, 역사 그리고, 사회적 문제와 관련 된다.

법학의, Jurisprudence란 단어를 살펴보면, 법(Juris) 와 숙고(Prudence)의 어원이 의미하듯, 바로 법을 시행할 때는 공정하게 적용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은 인류 공동생활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공동 생활이 단순했던 부족 시대에는, 종교나 도덕적 질서만 갖고도 충분히 사회 질서를 지켜나갈수 있었으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종교나 도덕, 또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심에 호소하는 규범만 가지고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 외부로부터의 강제력을 통한 제재, 규범 즉 법이 요구 되었다.

기원전 3천년경, 고대 이집트에는 현 사법제도와 매우 유사한 사법제도를 갖춘 “마아트 (Maat, 법과 정의의 여신)” 정의와 도덕의 개념에 기초한 법정이 있었으며, 기원전 22세기 경의 고대 수메르의 통치자 “우르남무(Ur-Nammun)”는 인과관계를 기초로 한 최초의 법전을 공포하였으며, 기원전 1760년 경 함무라비 왕은 이보다 더 발전된 바빌로니아의 법을 편찬하여, 나라 곳곳에 비석에 새긴 함무라비 법을 세운 역사가 있다.

기원전 1280년 경 구약성경에는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강한 동등한 징계를 요구하는 사회안정법이 있으며, 그 법은 현대법 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비해, 로마의 법은 그리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상세한 규칙을 담은 전문적인 법체제로 발전하였다. 동양에서는, 중국 전국시대의 학자인 법가는 행동에 따라 엄격하게 상벌을 준만한 법률체제를 제안하였고, 법가의 법률체제가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에서 받아들여져 시행해왔다. 한국의 법종 가장 오래된 법은 고조선의 팔조금법으로 3개의 조항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법을 규정하였다.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조문의 기원이라 할 수있는 “우르남무 법전 (Code of Ur-Nammun)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법전은 기원전 2100년과 2050년 사이에 수메르 지역(지금의 이라크 남부)의 제3왕조인 우르남무 왕대에 기록되어 1952년에 발견된 법전이다. 그 법전을 통해 우르남무 왕은 나라의 평등을 추구하고, 악덕과 폭력을 근절하길 원했다. 그 첫 법조문은 1)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되어야하고, 2) 증인이 위증을 하면, 15 세겔(Shekel)을 지불해야 한다. 3)다른 사람의 다리를 상해하면 10세겔(Shekel)을 지불해야 한다. 4) 노예가 자유인과 결혼하면, 그는 장남을 그 주인에게 보내야 한다. *한 세겔은 당시 일반 노동자 4일 품삯.

그 다음 오래된 법전은 3세기 후인,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경에 바빌론 (현 이라크의 남쪽인 알히라 지역)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론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사법의 영역에서, 종교를 떠나, 법 기술적인 규정을 발달시킨 민사법(채권법) 이 진보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라는 탈리오의 원칙(Lex Talionis)이 지배하는 법전이었다. 동법전은 서문 본문 포함 282개조와 몇 법조 구성 되어 있다. 몇 가지 흥미로운 법조항을 살펴보면,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의 눈알을 뺄 것이요, (2)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 환자가 죽게 되면, 의사의 손이 잘릴것이나, (3)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손을 자를 것이요 (4) 사형에 처할만 하다고, 고소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한 자를 사형에 처할것이요, 등이다.

함무라비 왕은 2.25 미터 높이의 돌에,



이향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대학 교육의 가치

9월은 잔혹한 태풍의 계절이지만 또한 모든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희망찬 교육의 달이기도 하다. 근래에 많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로 직업취득과 경제력에 관한 조건을 많이 들고 있으나 대학이라는 곳을 직업 훈련소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시절에 인생에 관한 철학과 어떻게 보람 있는 삶을 살아 나갈까 하는 데 치침이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 시절에 무슨 과를 전공하던지 괴테(Goethe), 루소(Rousseau), 셰익스피어(Shakespeare) 같은 작가들의 책을 읽을 기회가 있어야 하며, 철학, 예술 방면에서도 일반 교양과목을 통하여 대가들의 작품, 작곡이 소개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이 대학 생활의 가치며 생명이다.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더 교양인이 될 확률이 높으며 인생을 보람있게 영위하게 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다. 인생의 즐거움을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때로는 위대한 작품을 읽거나 감상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대학 생활 중에 이런 취미 생활을 발전시켜야

하며 대학 교육의 중요성과 모미가 이런 곳에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을 너무 실질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좀 더 이상적으로 건전하게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 교육과 대학 생활이 미래의 인생에 진실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학문 면에서 자기 전공과목 공부도 중요하지만, 플라토(Plato), 아리스토텔(Aristotle)이 지칭한 것처럼 참다운 시민이 되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 모든 지식인이 윤리와 도덕을 겸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 하였어도 이런 노력이 결핍되면 지성인이 되기보다 한낱 기술 전문인(Technocrat)으로밖에 발전 못 할것 같다.

미국이나 한국 정치의 스캔들을 보면 많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훌륭한 대학과 법대를 나왔지만 상식 이하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결핍된 것 같다. 즉 유명한 정치가, 변호사, 의사, 과학자가 회의 전에 훌륭한 인간이 되는 교육을 못 받았다는 증거다.

전 웨퍼드 대학 석좌교수

동 법전을 새겨 나라 곳곳에 세워 법을 준수케 함으로 메소포타미아 땅에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우고,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지양했다. 현재는 볼산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한국에는, 고조선 시대의 8조 금법이 있었고,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에 기록으로 남아있다. 현재로는 8조 중 3조 내용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즉, (1)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하게 한자는 곡물로 보상한다. (3)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속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이법은 원시 공동체 사회이후, 만민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규제 성격을 지닌 상당히 발전된 사회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즉 고조선 시대는 인간의 생명 및 노동력을 중시하며,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노예 및 화폐 제도의 정착에 힘을 썼다고 할 수 있겠다.

민법이란 형법이란 모든 법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다. 법은 동시대의 사람들의 공유하는 가치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의 기원이 후, 오천년이 지난 현재의 법의 발전과

지향점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게 안개 속을 지나고 있다. 특히, 지난 50년 동안 법의 변천은 롤러코스터를 타 듯 예측불허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가 일세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 들, 동성애의 법적 차별금지, 동성간의 혼인인정 등을 수용하며 변화해 나가고 있다. 시기가 바뀌어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가 바뀌어 폐단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나, 그 변화의 속도가 보수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독립 선언문을 기초하고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경우에 다수의 의사가 관철되어야 하지만, 그 의사가 올바른 것이 되려면 합리적이여야 하고, 소수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법률이 평등하게 그것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압제가 될 것”이라는 이 신성한 원칙을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의 대통령 취임사(1801.3.4.)에서 갈파했다. 법을 만드는 이들, 집행하는 이들 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공정한 법 정신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때 법은 사회의 꽃대 역할을 감당하리라 본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국가 R&D 전략, 예산 집중 투자할 곳은 대학”

100인 위원회 제2차 자료회의 차상균 교수 4차 산업혁명 강연

“스마트 디지털 접점 확보 땀 모든 산업에서 영향력 우월 현장 경험 갖춘 교수 영입해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필요”



지난 8월 21일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100인 위원회 제2차 자료회의'에 서정화 회장, 민경환 이민섭 부회장을 비롯해 100여 동문이 참석했다.

페이스북 또한 딥러닝 기술을 접목시켜 사용자가 공개한 사진-동영상-텍스트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다 정밀한 사회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상업적 마케팅이나 정치적 캠페인의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실시간 영상분석이라는 혁신성이 기존 SNS 빅데이터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공유 경제 모델에 기반한 우버는 자동차 소유자와 사용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자율주행기술의 개발과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독일·중국의 혁신경쟁 양상

아마존-페이스북-우버에서 보듯 미국의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인재의 선점’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차 교수는 페이스북 직원의 수가 최근 10년간 150명에서 1만5,000여 명으로 10배 증가했다는 점을 꼽은 데 이어 “6,500명 수용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 중”이라고 말했다. 우버 또한 임직원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 샌프란시스코 본사 주변이 시장 바닥 같았던 지난해 여름의 일화를 들려줬다. 미국의 혁신 기업들은 ‘인재 강박관념’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과학자를 선점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발달된 제조업이라는 강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디지털 혁신엔 뒤처졌던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2013년 ‘인더스트리

4.0’을 표방하며 제조업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 것. 독일의 기술선도 기업인 SAP의 헤닝 카그만 전 CEO가 인더스트리 4.0 전략 수립에 앞장섰으며, SAP 공동설립자인 하소 플레트너의 이름을 딴 연구소가 실시간 SAP HANA 인메모리 플랫폼 기술을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

차 교수는 SAP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2002년 실리콘밸리에 그가 설립한 미국법인 TIM(Transact In Memory, Inc.)이 2005년 SAP에 인수됐던 것. 차 교수는 이후 10년간 SAP Labs Korea의 설립자이자 SAP HANA의 공동연구개발 책임자로 일했다. SAP는 2009년부터 HANA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전사적 혁신 과정을 거쳤으며, 차 교수는 이 혁신 과정을 주도해 SAP가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물론 업계 주류로 부상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2017년초 SAP의 회사 가치는 140조원으로 HANA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약 3배 증가했는데, 이는 현대자동차 시가 총액의 4배에 해당된다.

중국은 미국과 독일 두 모델을 흡수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산업고도화계획인 ‘중국 제조 2025’를 발표, 소재 부품 산업에서부터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모든 제조업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또한 BAT라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해 미국의 혁신 기업을 따라잡으며 성장하고 있다.

차 교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젊은 인재들로 꽉 차 있어 놀랐다”며 텐센트에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텐센트 임직원의 평균 연령은 27세, 평균 근속년수는 7년입니다.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에서 역량을 키운 후 창업을 합니다.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져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의 자극제가 되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예언

서정화 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추종전략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제는 추종자에서 혁신자로 신속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에게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은 혁신의 정점이자 총합이라고 역설하면서 이전까지의 산업혁명과 달리 모든 영역과 연관돼 있다고 짚었다. 이는 차상균 교수의 강연과 상통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서 회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대학의 활약을 꼽았다. “대학이 개발하고 양성한 최신기술과 젊은 인재들이 산업 전반에 혁신성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한 것. 차 교수 또한 대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문·사회·자연·공학·의학을 아우르는 탈학제적 전문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며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데이터사이언스와 파과적 혁신을 가르치는 허브 형태의 대학원 설립을 제안했다.

차 교수는 미국이 디지털 혁신의 진영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로 정치적 지각변동에 관계없이 선도적 대학에 일관된 투자를 해온 정부의 공헌을 꼽았다. 구글 창업까지 6년, 그 후 상장까지 다시 6년 도합 12년 동안 스탠퍼드 대학원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을 꾸준히 지원했던 것. 반면 우리나라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R&D 기조가 바뀌는 일이 반복된다”고 차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UN이 인정한 전자정부 선도국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엔 국민의 건강 보험 데이터가, 교육학술정보원엔 초중고 교육 데이터가, 고용정보원엔 국민고용과 실업이력이 축적돼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정책 및 예산기획에 활용하고 실행과정을 추적하면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글로벌 역량이 더 우수한 거점 대학에 정부 R&D 예산을 분산 투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모교 빅데이터원 기원의 일환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아카데미’와 ‘도시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를 설립해 자신이 주장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모국 총동창회보]



이재호 (공대 87)

미국의 레코드 가게에 오랜만에 들른 사람은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게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비닐 레코드(대부분 LP)입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에서 레코드를 구입하려면 뉴베리 코믹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게의 중심은 오래전부터 CD가 아닌 LP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즈 앤 노블이나 다른 레코드 가게에서도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디지털이 필름을 대체한 지 한참 되었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해상도가 필름을 능가하는데도 필름 카메라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필름 공장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피카소나 헤밍웨이가 썼다는 몰스킨 노트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고, 만년필을 찾는 사람도 꾸준히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듯한 이런 모습은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다른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LP나 필름 등 아날로그로의 회귀 현상에 대해 소개하고,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인 데이비드 색스는 아날로그



가 디지털이 줄 수 없는 '진짜'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손에 잡히는 '무엇'이 주는 실재감은 디지털이 주도하는 현시대와는 다른 '협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협하다는 말은 '개성 있게 멋을 내다'는 뜻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애플 제품을 가장 비싸게 사는 애플스토어를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온라인으로 성장한 아마존이 계속해서 오프라인 서점을 만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필요는 온라인만으로는 채울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 책을 읽고 오랜만에 미니디스크(MD)를 꺼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MD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행했던 매체입니다. 손바닥 정도 크기의 사각형 디스크에 앨범 한 장을 녹음할 수 있지요. CD 플레이어와 광케이블로 연결해서 녹음을 해야 하고 MD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지요. 여러 면에서 불편합니다. 그렇기에 MP3 플레이어에 자리를 내주었지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마

음에 듭니다. 신경 써서 MD 한 장씩 녹음을 하고, 그렇게 준비된 MD 중에서 몇 장을 선택해서 출근길에 들고나갑니다. 디지털 플레이어에 고음질로 몇천 장의 음반을 저장하고 맘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음에도, MD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음악이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보고 좋았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LP 열풍을 LP의 전성기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10~20대가 주도하는 걸 보면 아날로그 회귀 현상을 쉽게 복고라 단정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보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물이 주는 즐거움을 사람들이 재발견했다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아날로그가 주는 적당한 불편함에 '느림의 미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유 있는 토요일 아침이면, LP를 골라 먼지를 닦아내고 턴테이블에 올려 음악을 들으며, 종이 노트에 만년필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적은 글이 랩탈을 켜고 그 안에 저장된 음악을

들으며 타이핑하는 글과 별로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날로그가 주는 풍성함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느림'이 아름다운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특히 쪽에서 일을 하기에 기술의 변화를 누구보다 실감합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이 매일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의식적으로 느림을 추구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번 주말에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꺼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LP를 듣거나 노트에 손글씨를 쓰거나 필름 카메라를 꺼내 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나 친구들과 오랜만에 보드게임을 해도 좋고요.

아날로그가 주는 불편함 속에 빠르게 움직이던 몸과 마음을 멈추면, 바쁨 속에 지나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MD를 꺼내 들으며 음악 듣는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듯이요. 이런 시간이 누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 말대로 저희 몸은 아날로그니까요. *



정태영 (문리 71)

플라톤만큼 민주주의를 증오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우중愚衆의 정치', '폭민暴民의 정치'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철인 왕(philosopher king)'이 다스리는 국가를 꿈꾸었다. 그가 철인이 지배하는 나라를 이상향으로 생각한 것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처형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테네의 민주정에 극도의 환멸을 느꼈다. 그의 나이 28세 때의 일이었다. 한창 미래의 이상과 희망에 젖어 있던 나이였다. 현실 정치에 극도로 실망한 그는 정치가로의 꿈을 접었다.

그가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해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는 노년에 쓴 그의 '제7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 "나 역시 젊었을 때는 자각을 갖추는 즉시로 국事國事에 종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은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의 친애하는 소크라테스를 불경죄라고 하는 억지 죄목을 씌워 사형에 처했습니다.

나는 현기증을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현존하는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나쁘게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국가론'에서 "철학자들이 군주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군주 또는 통치자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즉 정치적인 힘과 철학이 한 사람에게 합일되지 않는 한, 나라에 있어서나 인류에게 있어서나 악과 불행의 종식을 결코 볼 수 없다."고 철인정치를 설파했다.

우리 시대의 철인은 누구인가?

플라톤은 고등교육을 통해 철인을 육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 시대의 철인들도 바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법부 집단도 몇몇 집단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 상황을 바라보면서 철인=고등교육=선의 추구라는 플라톤의 등식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깊은 회의가 든다. 비록 그들이 플라톤이 정의한 것처럼 철인이다 할지라도 '인류를 악과 불행에서 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인신구속을 위한 체포영장은 남발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위협을 받고 침해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철인哲人을 기르기 위해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 기관이었다. 이 아카데미는 이후 무려 900년이나 최고 교육 기관으로 존속했다. 로마와 고대 세계에서 유수한 학자들이 유학 왔다. 요즈음 말로 치면 하버드 대학이었다. 플라톤은 이 아카데미에서 통치자 재능이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고등교육을 시켰다.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지, 선한 것 (the good)에 이르는 방법 등 국가 운영과 지도자의 덕목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플라톤의 생각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착각이었는데도 여전히 입증되고 있다. 철인

플라톤의 착각

정치는 결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역사는 플라톤의 염원과과는 달리 반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말해주었다. 암흑시대라는 중세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다. 장군들도 글을 쓸 줄 몰랐다. 수도원의 수도사를 제외하고는 글을 배우거나 쓰는 사람이 없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였다. 옛날에는 지식인은 그저 가정교사나 하는 것이 일이었다. 로마 시대에 가정 교사는 대개 노예였다. 돈 많은 사람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떠돌이 식객을 '유사游士'라 불렀다. 이리저리 주인을 찾아 떠도는 지식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제나라 맹상군(孟嘗君)은 식객을 3천 명이나 두었다고 해서 유명하다. 사실 공자도 유사游士나 다름없었다. 벼슬을 구하러 10여 년이나 각 나라를 다녔지만 벼슬을 얻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 아이들이나 가르쳤다. 반면 난세의 거령쟁이였던 주원장은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중원을 평정하고 명나라를 세웠다. 민심을 정확히 꿰뚫은 혜안 덕분이다. 그는 난세의 호걸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철인은 누구인가?

플라톤은 고등교육을 통해 철인을 육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 시대의 철인들도 바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법부 집단도 몇몇 집단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 상황을 바라보면서 철인=고등교육=선의 추구라는 플라톤의 등식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깊은 회의가 든다. 비록 그들이 플라톤이 정의한 것처럼 철인이다 할지라도 '인류를 악과 불행에서 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인신구속을 위한 체포영장은 남발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위협을 받고 침해되고 있다.

헌법 103조에 선언되어 있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가 이젠 장식품으로 전락했고, 헌법 교과서의 사법부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법리적 양심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미 빛바랜 인쇄 글자에

지난 제26차 평의원 회의(보스톤)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고 미국내 26번째 지역 동창회로 등록한 커네티컷 동창회 초대회장 유시영(문리 68) 동문이 본회보와 미니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9월 10일 보스턴에서 가졌던 회보 편집회의를 마치고 신용남 차기 회장 부부, 김원영 편집장이 뉴욕으로 귀환하는 길에 유회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하게되었다. 저녁 노을이 짙 무렵의 방문에 말끔한 잔디 정원과 잘 가꾸어 놓은 꽃밭과 각종 채소, 허브 밭이 낯선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유 회장님 부부는 밝은 얼굴로 오래된 친구라도 방문한 듯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덱(Deck)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다 어둠이 내려서 안으로 자리를 옮겨 화기애애한 가운데 인터뷰를 계속했다.

*** 커네티컷 주에 서울대 동창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

유시영 회장: 미국을 25개 지역으로 나누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커네티컷 주에 동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임을 하겠다는 미주동창회 명의로 나온 4줄 3단기사를 지역 한인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한 후, 김정현 전 편집장님, 손재옥 전 회장님과 수시로 연락하며 지부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정현 전 편집장님은 동창회보 6개월 분을 보내주며 동문 모임을 결성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모임이 동창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커네티컷 거주 동문이 일부 포함되었던 뉴욕지역 동창회의 김도명 전 회장님과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정태영 전 회장님의 배려로 지부를 형성해 보겠다는 마음을 굳힌 후, 평의원 회의에도 참석하여 마침내 평의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지부 결성의 인준을 받아 미주 26번째로 커네티컷 동창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회의 바로 전, 뉴욕지부 회장님이 뉴욕지부 회원 명단에서 커네티컷 주에 주소가 있는 51명의 명단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셔서 저희 명단과 합하여 77명의 명단을 평의원의 회의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고전적인 고매한 인격과 지성으로 특징된 사법부 사람들은 전설이 되었다. 고전적인 사법부의 기능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 어떤 중년 판사가 최근 "재판도 정치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현금의 사법부를 재단하는 그들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재판도 정치이면 사법부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인민 재판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가장 민주적이기 때문이다.

커네티컷 동창회 설립 기념 유시영(문리 68) 초대회장 인터뷰



단체로 뉴욕 관광을 하는 커네티컷 동문 가족

*** 커네티컷 거주 동문 분포?**

유 회장: 주로 젊은 층보다는 장년이나 노년의 동문이 많으시고, 의사, 교수, 비즈니스 하시는 분 등 여러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단과대학은 주로 공대, 상대, 문리대, 음대 동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비영리 단체 등록?**

유 회장: 7월 31일부로 커네티컷 주 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마치고, IRS로부

터 TAX ID (EIN)도 받았습니다. 이제 동창회 지부로의 법적 절차를 마침으로써 미주 동창회의 Group Tax Exempt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마치는데, 뉴욕의 신용남 차기회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 동창회 정관이나 회칙 준비?**

유 회장: 저희 지역은 처음에 회칙도 없었고, 회비도 없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30 정도 참가비를 받고 럽스터 디너 파

티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헤어지곤 했습니다. 손재옥 전 회장님이 필라델피아 동창회 회칙을 보내주셔서 현재 이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 동문 모임이나 앞으로 계획하는 행사를 소개?**

유 회장: 그동안 모임을 가져온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많이 모이면 20명 정도 모이는데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모임을 권장합니다. 지난번에는 단체로 뉴욕 관광을 다녀 왔습니다. 동문이 참여하고 모임이면 베네핏을 주려고 합니다. 은퇴하신 동문은 동창회가 결성된 것을 무척 반기십니다. 2017년 연말에 송년 파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커네티컷 주에서 사시는 이야기?**

유 회장: 70년대에 빈 손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전화 회사에서 19년 간 일한 후, CSC 라는 컴퓨터 관련 업체에서 2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만큼 살기까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아내 유은주 선교사님과 함께 주위 노숙자(홈리스)를 돕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내는 2002년에 '아가페 노숙자 교회'를 창립하여 매일 아침 7시 교회에서 교인들과 예일대 학생 봉사자와 함께 노숙자를 위해서 커피를 끓이고, 빵과 따뜻한 수프를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 커네티컷 동창회 가입을 위한 연락처는?**

유 회장: t60syu@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잘 가꿔진 유 회장 자택의 꽃밭을 배경으로 신용남 차기 회장 부부와 유시영 회장

네와 같이하던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 임원들로 갈라버렸더군"이라고 계속한다. 이어 "그 명단에는 소위 국내 명문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글을 맺는다. 철학은 군주가 되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당위도 아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염원을 한 것은 착각일 뿐이다. 플라톤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한 것이다. *



박헌결 (공대 67)

바이칼, 문명의 빛일까

술한 신비로 둘러싸인 바이칼. 소련이 붕괴된 뒤, 한반도 문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길 듣고 호기심이 몹시 일던 곳이였다. 우리 민속 신앙의 뿌리가 있고 농사 지으며 살았던 까닭이다. 2008년 8월 초순 내가 이르쿠츠크에 첫 발을 내리는 순간, 1969년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 달에 첫발자국을 딛는 감격에 못지않았다. 유목민의 생활 방식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늘 이동하며 살았다. 비교적 온화한 기후에 물이 풍부하고 농산물이 있는 바이칼(Baikal)을 거치지 않은 유목민은 없었으리라. 이광수는 바이칼 호반을 거닐며 소설 『유정』을 1933년에 발표했다. 호수 물결과 뾰얀 살갗을 드러낸 자작나무 숲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 갈등 양상을 묘사했다. 호수로 들어오는 하천은 336개이지만 유입하는 물의 절반이 몽골 헝스걸 호수에서 발원한 셀렝가(Selenga) 강을 따라 흘러든다. 나가는 하천은 이르쿠츠크(Irkutsk) 시를 지나는 앙가라(Angara)강, 하나뿐이다. 유출 지점의 강폭은 1,000m이고 초당 2천 톤이나 방출한다.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하니 주위에 알미보 공장이

속에 또 다른 자연 현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바이칼엔 갈라파고스에서처럼 특이한 생물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 비밀은 수온이 연중 5℃ 내외로 유지되어 물에 녹아있는 산소와 무기물질을 깊은 곳까지 순환시키는 데에 있었다. 바이칼새우인 에베수라는 물을 정화하며 맑은 물 유지에 일등공신이다.

골로미양카(Golomyanka), 철갑상어, 시그(연어과), 오몰(omul) 등 물고기가 56종이다. 가장 큰 동물로 바닷물개보다 작은, 바이칼물개(nerpa)가 있다. 반투명 물고기인 골로미양카 몸체는 90%가 기름으로 물개의 식량이고 다른 물고기 총 개체수보다 두 배나 많다.

2011년 8월, 교수신문사 주최로 부랴티야(Buryatia) 공화국 수도인 울란우데(Ulan Ude)로 학술여행을 떠났다. 우다(Uda) 강과 셀렝가 강이 울란우데(Ulan Ude)에서 만나 바이칼로 들어간다.

나는 아직 모른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 신은 죽었다
정 반대의 생각.....

밀바닥 세상을 험겁게 살아 온 문호 막심 고리키가 한마디 한다
네가 믿으면 신이 있고 믿지 않으면 없는 거지
가난을 용케도 건너 뛰어 온 나는
아직 모른다
신이 내려다 보고 계신지를

사랑은 감정이다/사랑은 예술이다
서로 헛갈리는 말.....

대문호 발자크가 정리해 준다
사랑은 감정일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고
백발이 되어도 나는
아직 모른다
사랑이 뭔지를



김태형 (의대 57)

로움을 느꼈다. 중앙 분수대 벤치에 앉아 계신 노파 한 분에게 다가가니 옆에 앉으란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모습이 비슷해서인지 손을 어루만져 주시며 몸시 반가워한다. 울란우데에서 하루 일정을 보내고 150km 떨어진 자연자원 경영연구소

애를 보낸 그는 핀란드인 부인과 목조로 지은 집에서 살았다. 그가 집뒤편, 푸성귀로 가득한 뒷밭으로 안내한다. 저장 창고와 너른 뜰까지 제법 규모 있게 생활하고 계시니 다행이었다. 오지에서 외롭게 살면서 고국에서 온 한 핏줄의 동포를 만나



두 개나 있다. 이르쿠츠크 시 외곽을 지날 때, 푸른 하늘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구름이 동실동실 떠다니고 광활한 초원에서 빨강, 노랑, 보라색 꽃들이 아름다운 수(繡)를 놓았다. 풀을 뜯어먹거나 띄엄띄엄 드러누워 있는 말과 소들. 한가로운 풍경에 도취된 내 뇌는 사뿐사뿐 춤추고 있었다.

세계 담수의 5분의1을 담은 바이칼 호수엔 350종이 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호수 중간 위치쯤, 바닷에선 여전히 기름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도 호수는 수십 40m까지 투명하다. 왜 이리도 청정할까. 그 신비는 호수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연출에 있었다. 미생물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기름을 체내로 흡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시킨다. 그 소화과정에서 정화된다는 사실이 90년대에 밝혀졌다. 대략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호수

이 지역 옛 문명 흔적이 전부터 몹시 궁금해 부랴티야 자연사 박물관을 찾았다. 2만5천 년 전에 살던 동물들, 풀만 먹던 들소, 식물성 코뿔소를 구경하다 오야! 맘모스 다리를 만났다. 맘모스의 키는 3m, 무게는 4.5톤, 치아는 식물성 이빨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동물들이 약 2만 년 전, 갑자기 병하기가 몰아쳐 묻힌 모양이다. 우다 강변에 도자기 굽던 가마터, 사람이 살던 주거지와 보리재배 흔적도 남아 있었다. 이 지역에 동굴들과 불을 보전한 곳, 그리고 수렵 도구 유물이 발견된 걸로 미루어, 후기 구석기 시대 인류 생활의 터전이었으리라. 일행이 소비에트 광장을 산책하며 만난 부랴트 사람들. 그들은 사마니즘에서 17세기에 들어온 불교 영향으로 대부분 불교도가 되었다. 유모차 옆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부부, 망중한을 즐기는 아주머니들과 젊은이를 표정에서 순박하고 진한 여유

의 분소가 있는 이스토미노(Istomino)로 버스를 타고 떠났다. 세 시간 남짓 달리는 차창밖엔 끝없이 넓은 평원이 좌우로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셀렝가 세모벌이다. 바로 여기로구나! 강물이 자주 범람하며 홍수가 난 까닭에 비옥해진 밭을 일구며 살 수 있었으리라. 밀, 보리, 감자, 배추, 오이를 재배하고, 숲속에 차가버섯, 산딸기가 풍성하니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분소 속소를 나선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목조 건물 몇 채와 두 마리 소가 눈을 깜빡이며 누워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5분쯤 걸었을까. 호숫가에 이른다.

부근에 사는 고려인 부부께서 우리가 체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꼭 보고 싶다고 해서 그분 댁을 먼저 찾았다. 8순이 넘은 할아버지는 우릴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 감격해 일행을 외락 꺼안았다. 사할린에서 태어나 파란만장한 생



이지원



AI Music

인공지능이 새로운 기술로 급부상하면서 전세계는 이를 제4차 혁명을 이끈 핵심 주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음악 세계에서의 이 첨단 기술은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음악 세계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 네 번의 칼럼을 통하여 풀어나가고자 한다.

그 첫번째로 AI Music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AI Music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작곡 분야일 것이다. 가령, Google 혹은 Sony에서 가장 먼저 AI를 도입한 분야가 작곡이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역시 알고리즘을 사용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곡들을 발표하거나 상용화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적능력을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지능을 말하는데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인공지능은 앞으로 모든 음악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지금과는 전혀 다르거나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의 음악세계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AI Music: The Contemporary Music of the 21st Century AI Music의 역사적 의미

역사적 흐름을 보았을 때 음악은 항상 그 시대의 예술, 사회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먼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는 세계의 역사를 뒤튼든 ‘종교개혁’이라는 신학운동이 있었다. 이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음악을 회중찬송으로 만들어서 신학적인 개혁과 더불어 음악적인 개혁까지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루터는 작곡, 작사자로서 종교개혁의 교리를 음악으로 표현하여 종교개혁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기존의 성가, 민속노래, 세속노래 등의 익숙한 선율에 종교적인 독일어 가사를 붙여 종교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작곡하여 종교개혁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로크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낡은 사고 방식을 버리고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음악가들도 새로운 표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음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때, 예술가들은 강렬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건 축, 회화, 조각 등에서 대상을 과장하여 표현을 하기도 하였는데 음악가들도

마찬가지로 변화있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이내믹의 대비를 극대화시키고, 화성, 음색, 형식 등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예술과 지식의 변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왕과 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18세기 고전주의 시대에는 중산층들이 많은 재산과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주된 문화 향유층으로 부상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엄격하지 않고 재미있는 오페라가 흥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산층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다양한 음색과 다이내믹의 대비를 통하여 음악을 표현하는 변화가 생겼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종교음악과 비교하면 세속적인 음악이 연주 되었고 음악적 형식도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2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철강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있었는데 이는 음악세계에서 악기의 발달로 이어지게 된다. 목관악기인 플루트는 키작동법이 생겨났고, 금관악기인 트럼펫에는 밸브가 생겨나 쉽고 편리한 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피아노에는 현(줄) 제작에 고품질 강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첼레 프레임 생산이 가능해지면서피아노는 더욱 강렬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저음의 강한 울림과 공명된 소리도 발전된다. 이러한 악기의 발달로 화려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음악표현이 가능해졌고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화려한 기교의 곡들이 작곡,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20세기의 음악은 표현주의와 세계 2차 대전의 영향을 받게 된다. 표현주의의 대표주자인 칸딘스키(Kandinsky)는 쇤베르크(Schoenberg)의 음악을 듣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음악과 미술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은 폐허가 되고 그로 인한 현실의 재건축이 시작되었다. 특히, 3차산업 혁명의 기술발전은 음악세계에서의 녹음, 소리의 재생, 음악의 디지털화, MP3, 전자 악기 발명 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작곡가들은 새로운 기법과 사운드로 작곡을 하였고, 현대 음악의 전위 곡가인 슈톡하우젠(Stockhausen), 존 케이지(John Cage) 등은 전자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장소현 (미대 65)

위대한 여성미술가를 기다리며...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이 쓴 <왜 위대한 여성미술가는 없는가?>는 미술사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물고를 든 중요한 책으로 꼽힌다. 미술계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 왜 위대한 여성미술가가 없는 걸까?

여성 미술가로 얼핏 떠오르는 이름은 베르트 모리소, 수잔느 발라동, 마리 로랑생, 케테 콜비츠, 조지아 오키프, 프리다 칼로, 신디 셔먼 정도니 아주 미미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임당, 나혜석, 박래현, 천경자, 이성자 정도... 물론 지금은 여성 작가가 아주 많고, 활동도 대단히 활발하지만...

따지고 보면 미술가뿐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훌륭한 여왕은 꽤 있는데, 위대한 여자 철학자는 거의 없고, 마에스트라, 즉 여자 지휘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물론 걸출한 여성 미술가도 별로 없었다.

왜 그럴까? 완고한 가부장 제도에서 비롯된 남녀 차별 때문일까? 혹은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 구조가 다른 것은 아닐까? 성경 말씀대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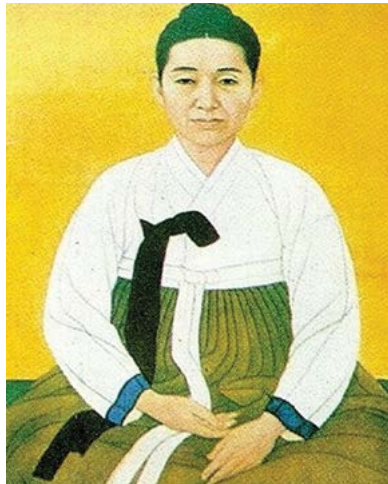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럴듯한 결론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살림살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다. 서양이나 한국이나 그런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에서도 여자 대접이 형편없었고, 여성의 인권은 그야말로 바닥이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체제와 교육의 불평등이다. 린다 노클린은 “위대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규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미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이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뿌리 깊은 편견과 불평등은 체제와 교육이라는 실제적 배경에 의존하여, 많은 여성들의 피할 수 없는 굴레가 되어왔다. 여성이 미술계에서 소외당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현재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Robotics, Sensor 등 새로운 기술들이 음악세계에 AI Music의 등장으로까지 자연스러운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AI Music은 21세기 새로운

실제로, 빼어난 예술가를 꿈꾸는 여성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다. 너무 걸림돌이 많다. 재능이 넘치는 이가 아이 낳아 기르고, 살림살이 하고, 게다가 요새는 돈까지 벌어야 하고... 그러면서 예술을 해야 하니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동안 우리 인류는 능력의 절반을 허비한 셈이다. 단연컨대 만약 무지막지한 남녀차별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화는 한결 찬란하고 깊어졌을 것이고, 우뚝한 여자 거장들도 많이 나왔을 것이다.



예술이 새로운 생명이나 가치를 탄생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어머니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성 예술가들이 펼칠 새로운 세계가 기대된다.

다행스럽게도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물론 예술계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여전히 여성의 사회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위대한 여자 철학자도 나오고, 걸출한 여성 미술가도 많이 등장하고...

괴테의 걸작 <파우스트>는 “영원히 여성이신 자, 우리들을 이끌어 올리도다”라는 신비의 합창으로 막을 내린다. 매우 상징적이다. *

형대의 현대음악으로 등장할 것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 두번째 칼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음악세계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오고 있고 현재 AI Music의 State of the Art를 소개하겠다. *

남가주 동창회

비숍 행사 성황리에 개최

9월 2일부터 4일까지 비숍에서 가족 캠핑 행사, 200여 동문 참가



(p 1으로부터) 해발 1만피트 존뮤어 트레일에 있는 라마르크 레이크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주위의 산천을 감상하는 여유를 가졌다. 이들은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오후 3시에 모두 귀환했다. 이날 등산에 동참한 최연소 연령은 54세였고 최고령은 77세였다.

3. 골프팀: Bishop Country Club에서 6명의 동문들은 2조로 나누어 골프를 즐겼는데,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조: 한효동(공대 58, 공대회장), 하기환(공대 66), 김병연(공대 68, 전 총동창회장), 2조: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 임춘택(상대 68),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4. 산악자전거팀: 서치원(공대 69, 전 총동창회장), 염동해, 유혜연(음대 79, 행사위원), 양수진(간호대 80, 서기), 이상실(간호대 88), 에드워드 등 6명의 동문들이 참

가하였다. 서치원 동문과 염동해 동문의 2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타고 약 5000 살의 무드셀라 나무가 산다는 Ancient Bristlecone Forest를 지나 해발 11500ft 의 Barcroft Field Station에 도착했다.

9시 경 자전거로 White Mountain Trail 시작하였는데, 높은 고도와 번개, 천둥, 우박 등에도 불구하고 서치원, 에드워드, 양수진, 이상실 동문 등이 정상을 정복하였고 Barcroft Field Station으로 돌아왔다. 5. 관광팀: 김기형(상대 75) 관광팀장의 인도로 55명의 관광팀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Death Valley로 향했다. 작열하는 태양 밑 아래 버스 일행은 Hottest, Driest, Lowest Land 등을 답사했다.

B. 오후 5시: 사대 동창회(임항균 회장, 사대 73) 주관으로 Milpond Picnic Area에 다시 모인 동문들은 와인을 곁들인 BBQ

Picnic을 즐기며 답소하였다. 보물 찾기, 화살 던지기, 과녁 맞추기 등 게임을 준비하였으나 갑자기 비가 오는 날씨로 취소되었고, Whisky Creek Restaurant에서 뒷풀이로 마감하였다.

▶ 9월 4일 (월)

아침에 해산하였는데, 일부 하이킹팀은 며칠 더 연장 산행했고, 관광팀은 Lake Sabrina, Bonanza 촬영지인 Alabama Canyon과 마법의 성을 연상시키는 Red Rock Canyon 등을 관광했다.

관광버스로 여행한 동문은 모두 40여 명이었다. 버스가 오가는 중에 온기철(의대 65) 동문의 “홍산문화”, 이희준(공대 69) 동문의 “순간이동”, 안혜정(가정대 77) 가족의 밤 위원장의 “FDA 호르몬 위험연구 결과”, 이원영 (문리대 81) “신암퇴치법,



신식이요법” 등의 강연이 있었고 동문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다. 또한 한귀희(미대 68) 미대회장의 노인 아파트 동문할애 소개가 있던 후, 박민창(농대 65) 낸센스 퀴즈는 많은 이들을 웃게 하였다.

버스 안에서 수고한 동문은 한귀희, 김양희(음대 77), 김경애(미대 83) 동문 등이었고, 양수진 동문의 기타에 맞춘 싱어롱은 분위기를 흥겹게 하였으며 프로그램 순서진행은 김기형(상대 75) 관광팀장이 맡았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동문들은 푸르른 대자연 속에서 산의 정기를 마시며 맑은 호수의 물결을 눈에 담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비수를 떠났다.

[글: 홍선례 (음대 70, 남가주 총동창회 문화위원장, 미주동창회 문화국장, 편집위원)]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ua.org

뉴욕지역 동창회

뉴욕 한인봉사 센터에 후원금 전달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이대영)가 지난 9월 8일 뉴욕 한인봉사 센터(KCS, THE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POLITAN NEW YORK, INC. 718-939-6137)를 방문하여 후원금 \$4,000을 전달했다.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이름으로 기부금 2,000불을 전달하고, 상임고문 이진구 \$500, 이사장 정해민 \$1,000, 부이사장 한태진 \$500 등 개인 후원금을 각각 더 해서 모두 \$4,000을 전달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뉴욕 한인봉사 센터를 회장 이대영, 상임고문 이진구, 이사장 정해민, 부이사장

한태진, 사무총장 강교숙 이상 5명이 방문하여 KCS 김광석 회장의 안내로 KCS TOUR를 하고, 현 커뮤니티 센터 설립 진행 과정을 김광석 회장이 브리핑했다.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가 한인 동포 사회에 관심을 두고 기여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많은 타 동문회가 참여하기를 소망했다. JEWISH CENTER로 이전한지 얼마되지 않아(3~4개월) 수리 비용도 많이 예상되는 넓은 곳인데 많은 동포의 동참 기부를 기다리고 있다. KCS는 뉴욕지역 동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동포들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사제공: 강교숙 사무총장)

남가주 미대 동창회

동문 작품 경매 전시회



'In Sentiment E', 24x48in, Paik, Hairan (백혜란)

남가주 미대 동창회(회장 한귀희, 미대 68)가 주관하고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성주경, 상대 68)가 후원한 제2회 “미대 동문 작품 전시 및 옥션” 행사가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Park View Gallery(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이 작품 전시회는 작년에 처음 시작하였고 올해 두번째로 갖는 행사로 이 전시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걸로 보기에 이 작품전시 행사는 일반 전시회와 같이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작가들이 참석하고 그림을 팔리고 원하는 분들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전시하는 목적이 다르며 거기에는 참여한 작가들의 모교 동창회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즉 원하는 분들의 구매를 돕기 위해 작가의 정상 가격보다 낮추어 판매가격을 정하였고, 작품의 판매시 판매 금액의 50%는 서울대 발전기금과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에 기증하여 모교 후원과 동창회 운영에 협조하게 된다. 따라서 전시작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원하는 작품을 할인된 전시가격에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구입을 통해 모교 및 남가주 동창회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행사이다. 또한

판매된 작품을 중심으로 소장인의 이름을 넣은 12달의 탁상 달력을 만들어 원하는 업체에 주문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도 동창회에 기부하게 된다. 미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4명 작가의 26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올해도 많은 동문들이 전시회를 관람하였고 큰 성과가 있었다. 참여한 작가는 강영일(미대 72), 김경애(미대 83), 김구자(미대 61), 박다애(미대 73), 박영구(미대 84), 박혜숙(미대 74), 백혜란(미대 70), 서동현(미대 67), 송경자(미대 61), 신동민(미대 60), 신정연(미대 61), 신혜자(미대 61), 최열자(미대 62), 한석란(미대 71) 등 모두 14명이었다. 현재 주문 받은 탁상 달력은 제작 중이며 10월에 배포 발송될 예정이다.

뉴욕지역 동창회

골든 클럽 야유회



9월 20일 뉴욕근교 Tallman Mtns. State Park에서 뉴욕지역 동창회 골든 클럽의 가을 야유회가 열렸다. Tropical storm Jose의 영향으로 당초 일정한 수요일을 목요일로 하루 연기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많았다. 본회 행사 중 일부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대회, 여행 등은 주로 참가 회원 부담으로 운영하며, 전 회원이 참가 대상인 신년교례회, 야유회 등은 주로 골든 클럽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참가 회원에게는 부담 없는 야유회였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다른 야외 행사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하는 김중을, 양인회, 이종석, 장동만 회원들과 하루를 함께

하며 즐거움을 나눈 뜻깊은 하루였다. 이번 Picnic을 위하여 행사 후원금을 기부해준 정인식 전 회장, 이대영 동창회장과 맛있는 미녀 공치/모시조개를 기부하신 정해민 회원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분위기를 위한 여흥 준비와 진행을 주관한 조달훈, 손대홍 회원께 감사드린다. [기사 제공: 홍종만 부회장]

참가 회원 김광현(2), 김재경(2), 김중을(2), 민준기(2), 손경택(2), 양인회, 이대영, 이진구(2), 이종석, 임도혁(2), 임호순(2), 장동만/고애자, 정도현, 정해민, 조달훈/조승자, 진명숙, 최구진(2), 홍사만, 홍종만/홍예경, 손대홍(2), 이석구, 최금림

남가주 공대동창회

정기 임원회

공대 남가주 동창회(회장 한효동, 공대 58)는 8월 24일 12시 LA Olympic에 있는 한식당 강남회관에서 한효동(공대회장, 공대 58), 노명호(상임이사, 공대 61), 김병연(상임이사, 공대 68), 위종민(총무, 공대 64), 차기민(재무, 공대 86)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임원회를 가졌다. 본 임원회에서 2017 상반기 행사에 대한 결산 및 앞으로의 행사에 대한 토론과 함께 “동문 Hotline” (213-422-9299, 한효동 회장)을 개설함으로 동문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Emergency 발생시 신속한 도움을 주기라고 하고 아울러 앞으로 LA를 방문하는 한국과 타주의 공대 동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대 연락 사무소로는 “작가의 집 (김병연 공

대 68)”,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0-3000이 결정되었다. 9월 5일에는 Hurricane Harvey로 인한 Texas의 수재민 돕기 구호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 한국일보 LA 본사에 500불을 보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쿠링 클레스가 “작가의 집”에서 2017년 새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효동 공대 회장 주관으로 시험적으로 열려 임원진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날의 주 메뉴는 “닭도리탕”이었다. 참석자는 한효동(공대 58 공대회장), 서치원(공대 69 상임이사), 김병연(공대 68 상임이사), 위종민(공대 64 공대총무), 김영도(공대 67), 조정시(공대 60) 동문 등이었다.

AI MUSIC

OPEN SEMINA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usic

Date & Time : Saturday, October 28, 2017 (2pm-3pm)
Place :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ost : MIT KSA, KSEANE
Sponsor :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Special Guest Speaker : Dr. Jiwon Lee, Pianist

Interlochen Arts Academy
Eastman School of Music (BM, MM)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DMA)

Debut Recital at Carnegie Hall
Special Presentation Award from Artists International
Winner of Rising Artists competition / Performance with Manhattan Chamber orchestra in a series of Rising Artists Jury of Steinway Society 22nd Annual Scholarship Competition

Program Manager of Young Leadership Future Foundation
Lectures on AI Music in the Electrical Engineering semina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ctrical Engineering Regular Seminar Series of Postech, The NIP Workshop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iano Society of Korea/ The 27th Piano Symposium, DIGIST and LG Electronics

Lectur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PONSOR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HOST MIT KSA, KSEANE
AISEA New England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

장애우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성황

서울대학교 워싱턴지역 동창회(회장 안선미)는 지난 9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Northern Virginia Community College Alexandria Campus, VA에 있는 Schlesinger Concert Hall에서 장애우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자선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이 세번째 자선 음악회로 2009년 송수 회장때 부터 장애우 돕기 행사를 하던 것이 2012년에는 제1차 자선 음악회(함은선 회장) 때 버지니아 장애인회(VAKADPA)와 함께 하는 자선 음악회로 발전하였고, 그후 장경태 회장때, 제2차, 그리고 이 번에는 서울대 동창회 주최로 세번째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이 번에는 윤상래 미주총동창회장의 격려사와 금일봉, 그리고 본부 나눔 위원회에서도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신응남 차기 미주동창회장의 광고 지원과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명실 공히 서울대 동창회 내의 나눔 행사로 되었다. 과거 두번의 음악회와 함께 이번 음악회를 위하여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함은선(음 77) 전 회장의 노력으로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공 할 수 있었다. 이번 음악회 대회장은 전 워싱턴 회장이며 전 미주동창회 제12대 오인환 회장이 맡았다.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워싱턴 지역사회의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답지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충분한 수입금도 예상 된다.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창회가 주축이되어 수준 높은 음악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음악회는 젊고 재능이 탁월한 음악인들에게 그들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어울려 잊혀진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The Julliard School과 Curtis Institute of Music에 재학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첼로(이상은), 바이올린(민경지), 피아노(신창용) 독주와 피아노 삼중주를 했다. 이상은과 신



왼쪽부터 함은선 준비위원장, 오인환 대회장, 김동기 총영사, 리차드 박(장애우 음악인, 썬소폰), 민경지(바이올린), 안선미 워싱턴 회장, 신창용(피아노), 이상은(첼로), 신응남(미주동창회 차기회장)

창용의 Schumann's Allegro & Allegro in A flat Opus 70과 Chopin's Introduction and Polonaise Brillante in C major, Opus 3로 시작하여 신창용의 Rachmaninoff의 Six Moments Musicaux, Opus 16 No. 1 & No. 4 piano 독주, 그리고 민경지와 이상은의 Hendel-Harvorsen의 Passacaglia for violin & cello로 1부를 마치고 2부는 Anton Arensky의 piano trio, No.1 in D Minor, Opus 32가 끝난 후 특별 출연으로 버지니아장애인협회의 Richard 박 군이 초청 연주자들과 함께 alto saxophone 연주

를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는 음악회가 되었다. 많은 청중들이 더불어 사랑을 나눌 때에 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다. 음악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 음악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음악도 감상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흐뭇하고 뿌듯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버지니아장애인협회와 수혜의연금, 그리고 본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남가주 동창회

현혜명 개인전

서양화가 현혜명(미대 61) 회고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이 9월 1~28일 LA 아트코어 유니언 센터에서 열렸다. 현대 서양화가 지니는 추상적 요소에 동양화적 소재를 결합한 평면작업을 해온 현혜명 동문의 작품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개인전이었다. 늘 자연을 모티브로 작업하는 그에게 새롭게 찾아오는 계절, 매일 아침 새롭게 만나는 꽃과 나무, 웅장한 산과 드넓은 바다는 매년 신비와 경이감을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느낀 기쁨과 놀라움을 맑고 투명하게 화폭에 투영해 영혼의 정화를 불러일으키는 작가이다. 1966년부터 미국에서 작업해온 그는 한국인의 뿌리와 미국에서의 삶을 통해 두 문화의 상반된 배경이 긴장과 조화를 이룬다. 주류 미술계에서 호평을 받으며 오랜 전성기를 누려온 현혜명 동문은 '매화' '체리 블러섬' 시리즈를 비롯해 흑백작업 '하도' 시리즈, '여정' 시리즈를 거쳐 '술' '내 마음속의 정원' '조상들의 정원'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왔다. 특히 '조상들의 정원'(Ancestral Gardens) 시리즈는 오래전 청계천에서 구입했던 고서를 뜯어 캔버스에 붙이고 그 위에 그린 그림들로 10년 넘게 계속하는 작업이고 '내 마음속의 정원'(Garden in Me)는 유럽에서 눈에 담은 '날개를 단 천사'의 이미지를 차용해 정원을 가꾸는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현 동문은 이번 전시를 위해 '조상들의 정원 1503'(Ancestral Garden 1503)을 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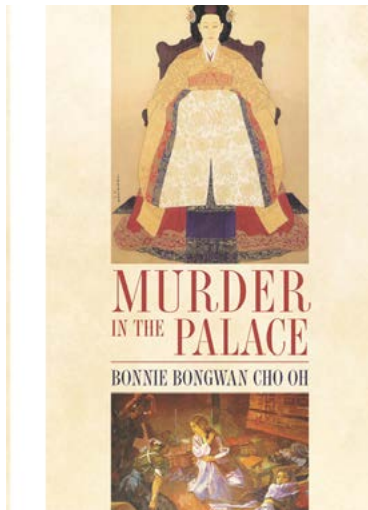
로 '내 마음속의 정원 1406'(Garden in Me 1406)까지 15점의 작품들을 담은 카탈로그를 제작했다. 전시 팸플릿이라고 보다는 판매용이다. LA 아트코어의 속사정을 알게 된 그는 카탈로그를 10달러에 판매해 수익금을 아트코어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의 전시에서 보기 드물었던 5x5인치 크기의 소품들을 작업해 선보인다. 현혜명 동문은 서울대 미대와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츠를 졸업하고 커네티컷의 하트포드 대학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6년 반 세기 담은 '날개를 단 천사'의 이미지를 차용해 정원을 가꾸는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현 동문은 이번 전시를 위해 '조상들의 정원 1503'(Ancestral Garden 1503)을 커버

다. 다음 10월 7일에는 박윤정(미대 62) 동문께서 미술 교양 강좌(Painting art &

contemporary ceramic art)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오봉완 동문 출판기념회

서울 남산 '문학의 집'에서 세계작가연합 주최



9월 9일 오후, 서울 남산의 '문학의 집'에서 세계작가연합이 주최하고 '문학의식'이 후원한 '문학의식 2017 문학잔치 한마당'에서 오봉완 동문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안혜숙 작가와 공동 출판기념회다. 참가자들은 이흥구 전 국무총리와 김호준 전 노동부장관, 김유수 전 건국대 부총장, 세계한인작가연합 공동대표인 LA의 김호길 시인, 시카고문인협회장을 역임한 명계웅 문학평론가, 허정자씨, 현 시카고문인협회장인 김영숙씨, 문학평론가인 건국대 김선주 교수, 시인 이우림씨 등 100여명이었다.

이흥구 전 총리가 축사를 했다. 그는 "오봉완 작가와는 서울대 법대 1953년 같이 입학한 동기"라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년을 맞았던 1998년, 오봉완 교수께 부탁해서 주미대사관 50년사를 집필한 기억이 새롭다"고 소개했다.

작품에 대한 서평 소개도 뒤따랐다. 오봉완 저 '궁내의 살인'은 시카고한인문인협회 창립자이며 초대회장을 지낸 명계웅 문학평론가가 맡았다. 그는 "1970년 미국에 갔다"면서 "시카고는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조선이 참가해 많은 일화를 남긴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궁내의 살인'은 명성황후를 그린 작품으로 "한 나라의 왕비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봉완 동문은 "1953년 부산에서 서울대학에 입학하고 1년반만에 미국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청일 전쟁으로 역사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명성황후가 잔인하게 시해당한 사실을 알고, 그 이래 47년간 이 소름끼치도록 아픈 죽음을 소재로 소설을 써야겠다고 집착해왔다"고 소개했다. *

서경석 동문 신간 출간

"The New Doctor on Maple Street"
(Published by 'iUniverse/www.iuniverse.com)



서경석(의대 57)

DR. Suh는 년전에 그의 첫 작품(단편/에세이)집 "Walking in the DMZ"를 영문으로 펴낸적이 있었고, 내가 그 소개를 간단히 역시 영문으로 했었다.

이곳 미국서의 우리의 의사 모두의 애로(?), 인생역정, 큰(?) 꿈들로 영풍한 곳에 정착을 하며, 문수를 이어가며 고군분투하던 젊은 이력, 맥맥히 이어가던 눈물겨운 우리 심지,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아련히/습습히 깔린 지우지 못할 정서, 물론 물론 애틋한 고향/고국에 향한 nostalgia,... 그위에 overlap되는 현실/피치못할 갈등과 감내,... 그렇게 살아온대로 관찰해 온 대로 그런 '우리들의 얘기'를 썼더니.

그의 두번째 책이 8월에 발간됐다. 더 원

하기환 동문

LA 한인상공회의소 제41대 회장 취임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제41대 하기환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6월 28일 할리우드 소재 태글리안 콤플렉스에서 문학평론가가 맡았다. 그는 "1970년 미국에 갔다"면서 "시카고는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조선이 참가해 많은 일화를 남긴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궁내의 살인'은 명성황후를 그린 작품으로 "한 나라의 왕비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LA 한인커뮤니티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일 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한인동포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하기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애릭 가세티 LA시장을 비롯해 존 쉐 가주 재무장관, 미셸 박 스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 허브 웨스 LA 시의회 의장, 데이비드 류 LA 4지구, 호세 후이자 14지구, 미치 오펔 13지구 시의원, 짐 맥도넬 LA 셰리프 국장 등이 참석했고, 홍명기 밝은미래재단 이사장, 금중국 한미은행, 조앤김 cbb 행장 그리고 한국 지상사 최덕진 대표, 이기철 LA 총영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근년에 열린 어떤 한인 커뮤니티 행사보다도 530명에 달하는 참석 인원이나 24만달러의 상의 운영기금을 모금한 스케일 면에서 단연 돋보였다. 부동산 투자관리와 한인 대형 슈퍼마켓 한남체인 회장으로서 크게 성공한 하기환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미 주류사회 내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1970년 서울대를 졸업 후, 1977년 UCLA

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하기환 회장은 1992~1993년 16~17대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고, 2000~2004년 25대, 26대 LA한인회장도 지냈을 만큼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으며 LA 한인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 업적은 LA시로부터 지난 2013년 월셔 블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가 교차하는 북동쪽 광장에 '하기환 박사 광장'을 명명하는 영광으로 보상받기도 했다. 남들 보기에 이미 충분한 성공과 존경을 받고 있는 하기환이 25년 만에 세 번째 LA한인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하기환이 어려운 중책을 다시 맡기로 결심하고 하 회장은 앞서 그 어떤 신임회장을 보다는 큰 출발을 알렸다. 돋보였던 취임식만큼이나 LA한인상의 멤버들과 커뮤니티가 거는 기대도 크다.

하 회장 스스로도 "상의 회장 자리를 맡은 이상, 1년 회장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상의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 상공인들의 권익 옹호와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장을 찾았던 그 많은 인사들의 바램과 기대도 남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

[기사 제공: 홍선례]

exhausted professional trauma, physically and mentally alike.... 그걸 떨쳐내는 홀가분한 심정. 평생을 차고-끼고 달고 살아온 'a little Torture Machine', 우리들 당시 'Beeper'를, ... 은퇴 하던날 아내와 호숫가 석양에 앉아 물에 던져버리는 한 'Sisyphean Finale'. (내사 곧, Denver 내 딸네를 방문할 참. 그때때 우리들 'Goodies'/Hemp, the 'Cannabis'를 같이 머물러 흥여기 시도해 본다.) 이흥빈 H.Binn Lee / 의 '57.

(주: 1. 'Sisyphus': A legendary Corinthian king eternally to repeatedly roll a heavy rock up in Hades only to have it roll down again as it nears the top.
2. 'Hades': A Polite term for 'Hell' / Underearth 'abode' of the dead, homes to dead souls, in Greek mythology.)

동문회 9월 가을 행사로 장학금 모금 걷기 행사를 16일 토요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예전에는 Mission Bay에 위치한 공원 내에서 하였지만, 다른 행사와 겹치는 바람에 새로운 위치를 모색한 결과 Escondido 남단에 위치한 Lake Hodges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침부터 구름과 함께 흐린 날씨 덕에 선선한 하이킹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Lake Hodges 남단 보트 타는 장소그늘 아래 3개의 피크닉 테이블에 터를 잡았고, 모임 시간인 10시가 되니 하나 둘씩 동문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영기(치대 61) 동문 부부를 포함한 첫번째 그룹은 왕복 5마일이 조금 넘는 호수를 낀 길을 왕복 두 시간 만에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끝냈고, 늦게 출발한 다른 그룹들은 역랑겏 본인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다녀 왔습니다. 처음으로 동문회 행사 장소로 이용된 Lake Hodges는 산과 함께 호수가 바로 하이

킹 코스 내내 있어 시원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거디다 덥지 않은 날씨 덕에 모두 가볍게 운동을 마쳤으며, 이후로는 주문해온 음식인 불고기, 잡채, 캘리포니아 롤 등으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샌디에고 지역에 있는 동문 학생/박사후 연구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있는 행사에 20명의 동문과 가족들(아이 2 포함)이 참가해 주셨고, 정성으로 준비해주신 장학금을 선뜻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행사에 참가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장학금을 보내주신 모든 동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말까지 샌디에고 지역에서 열심히 학업을 하고 있는 자격이 되는 동문 중 엄선하여 송년회 행사에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광섭
오교 물리 천문학부 교수

경락-프리모 순환계와 새로운 의학의 출현

1. 서론

동서양이 과학기술을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19세기에 이르러 서양의 과학에 바탕 한 기술의 압도적 우세로 동양의 과학이란 사실상 없게 되었고 기술도 서양의 과학 기술 일변도로 지구 전체가 통합 되었다.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특히 자연관은 서양 과학적 물질관이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고, 다른 관점이 혹시 살아 있다면 그것은 거의 미신이거나 주술이거나 비과학적 견해로 치부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의학이란 분야만 완전히 죽지 않고 아직도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로 쓰이고 있다. 동양의 다른 어떤 과학이나 기술 분야도 서양의 그것에 대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오직 한의학만은 대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물론 서양의학자나 과학자들은 한 의학을 일종의 심리적 사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대세일 수도 있다. 20세기에 일본에서는 정구의학에서 배제되었고 아직도 일본에서는 정통학문이 아닌 민간요법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 중국은 한의학이 독립된 의학이라기보다는 동서의학의 일부로서 중의학이란 용어를 쓰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만이 독립된 동등한 의사 자격증과 교육 제도를 한의학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은 한의학을 비롯하여 많은 전통 의학을 보완의학이란 분야로 임상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통학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유일하게 서양의학과 대등한 교육과 임상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것이 잘 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는 미래에나 판명되었지만, 이 분야에 관한 한 한국이 특별한 나라임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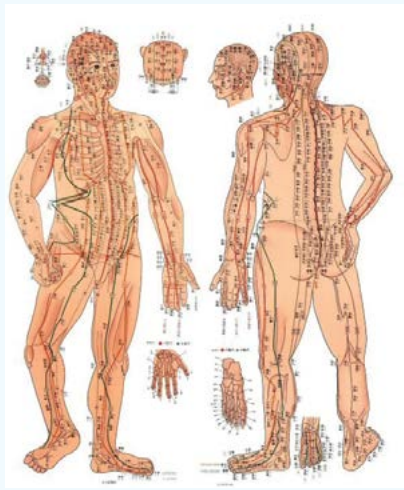
한의학의 핵심개념은 경락체계이다. 그러나 서구 의학계 일반은 경락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락 체계를 부정하고 한의학의 효과를 신경 작용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그러므로 이들

이 하는 연구는 한의학을 신경과학의 일부에 통합하려는 것이 목표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한의학의 과학이 판명 된다면 한의학은 서양의학의 발전에 약간 기여하고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수의 의과학자들이 한의학을 연구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을 하는 많은 한의사들은 경험적으로 경락과 신경이 전혀 다른 체계임을 느끼지만 과학적 증명의 길이 없으니 정통과학계를 설득하지 못한다. 한의학은 경험의 집합인 의술에 불과하다는 서구 과학적 관점에 대응할 수가 없다.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상황은 치료의 우수성이나 객관성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핵심 개념인 경락에 실체가 대응되지 않는 것이 근본 issue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전통적 한의학은 해부학적 실체로부터 유리된 상상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서양의학은 해부학적 기관, 조직, 세포, 핵, 유전자의 체계가 생리학 and 병리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과 화학이 적용되는 과학적 의학이 된 것이다. 반면에 한의학은 해부학이 없이 생리작용과 병리와 진단 치료 등이 전개된다. 이것이 공중에 뜬 체계라는 것이 서양 과학자들이 한의학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가 밝혀지기 까지는 한의학은 임상의학은 될 수 있지만 과학의 체계 안에 들어 올 수가 없다. 이를 달리 보면 경락의 물리적 실체가 규명되는 순간 한의학이 현대과학으로 인정받게 되고, 과학적 연구가 가능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만큼 경락의 실체성 연구는 중요한 주제이다.

2. 경락과 프리모 순환계

한의학 특히 침술의 핵심 개념은 경락체계이다. 이 경락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전신의 피부에 줄지어 있는 12개의 주요 경맥과 임맥, 독맥 및 8개의 특이 경맥 (기경) 등과 이들의 분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선 위에 놓인 점들을 경혈이라 하고 이곳이 침이나 뜸을 놓는 곳이다.



[그림 1] 경락도의 한 예. 좌우 12개 (합 24개)의 경맥과 임맥, 독맥이 선으로 그려져 있고, 점들은 침놓는 경혈이다. 출처 Google image.

이렇게 피부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을 잘 조사하면 무언가 주위와는 다른 특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경혈의 해부학적 특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결과 밖에 없다. 다만, 경혈에 모세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정도일 뿐 조직학 (histology)적인 새로운 어떤 구조물이 발견된 예가 없다. 그러므로 신경에 특별한 작용을 하는 어떤 생리적 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있을 수 있고, 이러면 한의학은 신경 생리학의 특수한 일부에 속하게 된다. 서양의학보다 크게 우수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한의학에서 새로운 생명관과 특별한 의학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이러한 일반 상황과 달리 북한의 평양 의대 교수였던 김 봉한 선생이 1963년에 발표한 봉한 학설은 경혈과 경락에 해당하는 특별한 조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광학 및 전자 현미경까지 동원한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발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이 있었고 중국 일본 등에서 이 실험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입증할 수 없었고, 설상 가상으로 김 봉한 선생이 소장인 연구소는 정치적 투쟁의 와중에 1966년에 폐쇄되었고 연구원들 대부분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몇 십년이 지나도록 봉한 학설의 진위는 알 수 없게 되었고, 신뢰할 수 없는 각종 낭설이 난무하였다.

2002년에 서울대학교 물리학부에서 봉한 학설의 재현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2010년에 이 주제의 국제학회를 개최하면서 프리모 순환계 (primo vascular system)란 국제 용어로 재탄생하였다. 프리모 순환계와 전통 경락체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프리모 순환계는 피부를 비롯하여 혈관, 림프관 내외와 신경 막 등 전신에 두루 퍼져 있는

순환계이다. 전통적으로 경락이라고 불려 온 것도 피부에 분포한 프리모 순환계의 일부이다. 다시 말해 경락은 프리모 순환계의 일부이며, 한의학은 피부, 근육, 근육 층에 분포한 프리모 시스템에 침을 자극하는 방법으로서 경락을 유용하게 사용해온 것이다. 하지만 인체조직에 대한 극미한 관찰방법이 없던 한의학에서는 몸속이나 뇌 속에 퍼져있는 프리모 순환계의 전모를 알지 못하고 피부에 분포한 부분만을 사용해왔다.

3. 프리모 순환계와 새로운 의학

프리모 순환계는 전신에 분포되어 있다. 전통적 경락체계에는 안 알려져 있는 것 중 예를 하나만 들면 신경의 외막에 붙어서 달리는 신경-프리모 시스템이 있다. 이들은 척추를 따라 달려서 뇌에 들어가 뇌 전체에 퍼져있다. 이의 한 예를 그림 2에서 설명하였다.

‘족삼리’라는 경혈은 무릎 바로 아래 바깥쪽에 위치한 혈로서 옛날부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 온 침자리 중 하나이다. 그림 [2가]에서 원반 단지는 사람의 왼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위이다. 여기서부터 좌골 신경을 따라서 척추로 올라가는 프리모 순환계가 신경의 막을 따라 달려간다. [그림 2나]에서 보듯이 좌골 신경은 요추 4-5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른 바 디스크라 불리는 요통은 이 좌골 신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프리모 순환계도 요추로 들어와 척추의 막을 따라 뇌로 올라간다. [그림 2다]는 김 봉한 선생의 연구팀이 제시한 설명도로 뇌 속에 그물처럼 퍼져있는 것이 프리모 순환계이다.

경락체계에는 없는 프리모 순환계가 족삼리 - 좌골신경 - 척추 - 뇌를 이어주는 전혀 새로운 액체의 경로를 보여준다. 이 경로의 한 가지 응용으로 예를 들면 족삼리에 약이 들어 있는 약침을 놓으면 약이 뇌속으로 전달 될 수 있으므로 약물의 전달 경로로 쓸 수 있다.

피부 경혈에 약물을 주입하여 뇌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이른바 BBB (blood-brain-barrier)라는 장벽이 혈관과 뇌조직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장벽은 혈액에서 약물 등 이물질이 뇌조직 속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장벽이다. 그래서 약을 먹거나 또는 혈관주사를 하여도 뇌로는 쉽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뇌질환 치료제는 그만큼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프리모 순환계는 혈관과 독립적으로 직접 뇌조직으로 들어가므로 새로운 약물전달의 길로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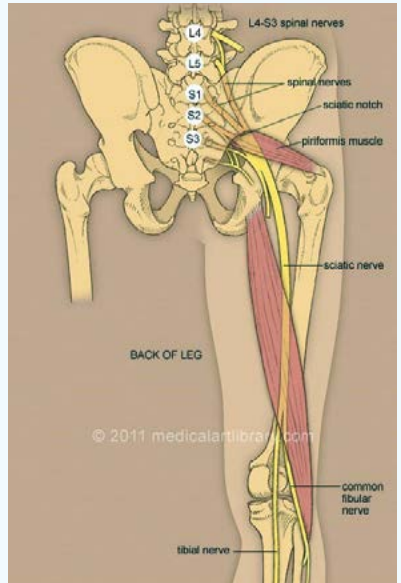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워 당면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한의학으로

도 적절한 치료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전혀 새로운 혁신적 치료술이 요청되고 있다. 프리모 순환계를 통해 치매 약을 전달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이 문제에 대처하는 신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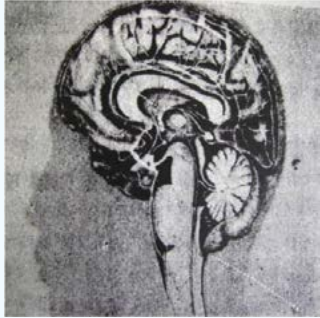
이 치료기술은 한의학적 개념인 경혈과 현대의학의 치료약과 프리모 순환계를 결합하는 새로운 의학의 출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프리모 순환계를 통하여 동서의학이 융합하여 혁신적인 치료 기술과 장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동서의학이 이상적으로 통합되어 더 높은 제3의 의학을 창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가] 무릎 바로 아래 원반이 가리키는 부근에 족삼리 혈이 있다. 프로모 순환계가 이 경혈에서 출발하여 좌골 신경막을 따라 척추를 지나 뇌속으로 들어가 퍼져있다.



[그림 2나] 좌골신경 (sciatic nerve)은 요추 4번과 5번(L4, L5)으로 들어간다. 프리모 순환계도 이곳을 따라 함께 척추의 막으로 들어간다. 그림 출처 Google image.



[그림 2다] 뇌 속에 그물처럼 퍼져있는 프리모 순환계. 김봉한 논문

4. 프리모 순환계의 새로운 생명관

한의학이 갖는 독특한 생명관은 ‘기’에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란 개념을 한의학 전반에 사용하면서도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게 되어있다. 서구의학을 대변하는 핵심어가 ‘분자생물학’이라면 한의학의 핵심어는 ‘기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가 분자계를 결합하는 새로운 의학의 출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프리모 순환계를 통하여 동서의학이 융합하여 혁신적인 치료 기술과 장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동서의학이 이상적으로 통합되어 더 높은 제3의 의학을 창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기’의 정체를 보여준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인 것은 ‘기’를 직접 탐구할 수는 없지만 ‘기’의 작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즉 ‘기’가 작용하는 경로가 바로 ‘경락’이고, 작용에 영향을 주는 장소가 ‘경혈’이란 것이다. 따라서 경혈과 경락은 바로 ‘기’를 탐구하는 열쇠가 된다. ‘기’의 정체를 밝히는 길은 ‘기’가 물질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 가를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와 물질이 상호 만나는 곳이 바로 경혈과 경락이다. 그런데, 경혈과 경락은 물질로 구성된 신체 조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신체의 변화를 통해 ‘기’가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알아낼 수 있고, 이어서 ‘기’ 자체의 특성을 규명하는 일이 시작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와 전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연구도 가능하고, ‘기’가 빛을 따라 어떻게 전파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 ‘기’가 있는 곳에 에너지가 모이는 지 조사할 수 도 있다.

물질과 작용이 전혀 없는 ‘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완전히 유리된 것으로 과학적으로는 알 길이 없고, 또한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알 필요도 없게 된다. 우리 물질계와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알 방도도 있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경락경혈이다. 그러므로 한의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생명관을 알아내려면 필히 경혈경락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되면 다음 단계인 ‘기’가 물질계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조사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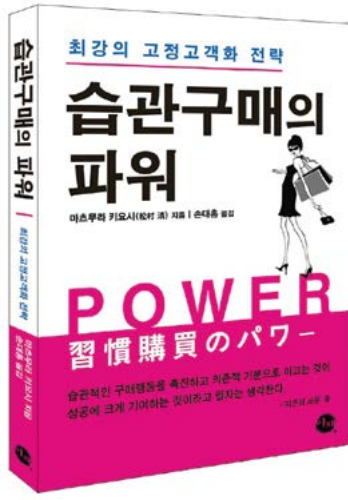
한의학은 ‘기 의학’이므로 경락-프리모 순환계의 실체가 정립되면 한의학의 깊이는 세계가 들어 나고, 새로운 생명관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중고 생명의 대 전환과 큰 적공, 2016,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에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바꾸어 쓴 것이다.

손대홍 동문 번역서 출간



손대홍 (미대 79)



미대대학 동문회장과 뉴욕지역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손대홍 동문(미대 79)이 한국에서 일본어 서적의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미국과 일본 유통에 정통한 저명 컨설턴트인 일본인 마쓰무라 키요시(松村 清)의 『습관구매의 파워 - 최강의 고정고객화 전략』(도서출판 이체)를 한국어로 출간하였는데, 인터넷 상거래의 급성장에 대응한 오프라인 소매점의 장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손대홍 동문은 H MART 본사에서 VP겸 CMO로 근무를 하였으며, 리테일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소매업과 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다. 일본생활에서 얻은 일본어 실력과 오랜 업계의 경험으로 일본인 저자가 설명하는 미국 소매업의 특징을 정확한 용어로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진하춘 탕수육



서윤석 (의대 62)

연건동 앞 대학가가 없어지고
냄새나던 개천도 안 보이고
데모하던 친구들도 다 늙어버렸는데
육칠십년대 학생운동을 정리하는
살아남은 그 친구를
반 세기가 더 지나서 만나니
감개가 무량하더구만
가발끈 그 몸으로 린치를 견디며
군사독재에 항거하던
송아무개 그친구
평생 고생만 했더구만

울거갔다는
진하춘애는 못가고
강남 토담집에서
허리 쭈그리고
감자탕 데워 먹으며
소주 한 잔 나누었지
세월을 탓하며
늘어가는 이야기만 나누다가
헤어지고 말았구나

쫄지쫄지 씹하던
진하춘 탕수육
“여기 서랍에 학생증 많이 있어. 우리 사람, 무얼 먹고살아.”하던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
그 학생들 지금은 다 어디서 무엇들을 하는지...

한국 현대 시인협회 회원
국제 PEN 한국본부 회원



김웅진 (문리 48)

가족여행

우리 가족 21명이 아이슬랜드 비행장에서 만났다. 버지니아에서 온 큰 딸가족, 캘리포니아에서 온 둘째 딸 가족과 세째 딸 가족 조지아에서 온 큰아들과 둘째 아들 가족과 우리 부부가 전부였다. 몇몇 손자와 손녀들이 직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해하고 다음기회로 미뤘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라 서로 반가워 일사판고 인사를 나누니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한가족의 정은 끈적끈적한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예약한 여행사 직원이 우리를 반가히 맞아주니 우리가족의 아이슬랜드 여행이 시작하였다. 큰아들 부부가 세심하게 준비하고 검토한 이번 여행 계획에는 남북 아이슬랜드를 관광하는 12일간의 단체여행으로 Oversea Adventure Travel Co가 안내하는 우리가족 21명만의 여행이었다.

아이슬랜드 수도 비행장은 여행객이 혼잡을 이루는 보수공사가 한창인 시골 비행장이었다. 알고보니 아이슬랜드 총인구 30만 명의 8배가 되는 250만 명의 관광객이 금년내에 이나라를 방문하고 이 나라 총수익의 절반이상이 관광수입이라 하니 상상이 간다.

비행장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본 첫인상은 화산이 많고 나무가 적은 황무지같은 자연 그대로의 때묻지 않은 자연풍광을 간직한 나라였다. 북쪽에 가까운 나라이기에 여름철에는 하루종일 맑지만 밤이 없으며, 겨울에는 햇빛을 보는 시간이 아주 짧고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단다. 다행이 온천수가 많아 그것으로 발전도 하고 난방도 하니 추운겨울을 지내기가 편하단다. 우리가 방문한 Geothermal Power Plant에서는 보통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발전량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빙하가 녹아서 만든 많은 강물은 유명한 폭포들을 이루어 관광객을 즐겁게 하며 하루에서 일시 중단되면서 아이슬란드가 어떤 Renewable Energy의 천국이란단다.

우리가 체류한 호텔들은 모두 새로 지은 호텔들이라 깨끗하고 종업원들도 친절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증가하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위하여 숙박시설의 신설이 절실한 상태였다. 민박에 가까운 숙소를 많이 보았다. 2008년에 있었던 아이슬란드 은행 파산으로 나라가 망할 뻔 했는데, 2010년의 화산 대폭발로 유럽의 비행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면서 아이슬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위한 사람들의 호기심이 작용하여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율(년 10%)로 이어져 관광명소에는 관광버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가 합류한 Whale Watching Tour에서는 관광선이 3척이나 보일락 말락하는 고래의 꼬리를 쫓아서 갔으나 몸체는 못 보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준비된 낚시 시간에 내가 던진 낚시줄에 큰 생선이 올라와 즐거움을 주었다.



우리배에서 모두 5마리의 5파운드 나가는 생선을 낚아서 하선 후, 바베큐하여 한조각을 시식하니 여행 온 보람이 느껴졌다.

아이슬랜드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햇빛이 나와도 잠시 후, 비가 내리는 예측불허의 날씨다. 이 나라 전체가 아메리칸 플레이트와 유로피안 플레이트가 만나는 지점이라 지진이 많고 활화산이 많아 화산 폭발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불확실한 지대였다. 플레이트가 년 2cm씩 갈라지는 현상을 어느 National Park에서 보았는데, 우리 지구가 아직도 고정되지 않고 변화 과정에 있는 것을 보고 우주에서 지구는 아직 어린 작은 별일 것이란 생각을 했다.

온천을 방문하니 처음에 Yellowstone National Park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규모가 형태가 더 크고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을 즐겁게 했다. 야와 온천인 Blue Lagoon에 갔는데 사람들이 붐볐고 호수처럼 커서 놀라웠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는 Silica Gell을 얼굴에 바르고 있으니 마치

코메디 극장의 광대를 연상케했다. 북극 근처라 빙하가 많이 보였다. 차로 빙하에 가니 빙하가 녹아 강물을 이루고 있었고,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빙하가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일부 빙하는 지난번 화산 폭발로 검은 화산재로 덮혀 있어서 특이하게 보였다.

아이슬랜드는 미 켄터키 주와 같은 면적의 섬나라로 3,000마일에 가까운 해변을 가졌다. 자연그대로의 해변엔 온갖 새들이 사는 극락세계로 보였다. 1,000여년전, Viking이 이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아이슬란드가 무인도에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변화하였는데, 그 당시 사람이 살던 집을 방문했다. 추운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이 곳은 집이라기보다는 토굴에 가까웠다. 벽과 지붕은 흙판으로 되어 있고, 작은 출입구는 사람이 구부리고 들어가야하며, 창문은 없고 천장에 작은 구멍이 있어 채광과 공기유통을 하는 원시적인 작은 10평규모의 집을

마련해 주어서 거기서 입학시험을 치루고 다행히 합격이 되어 그 기숙사에서 2년가까이 머물렀다. 예과 시절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으로 고생없이 보낼 수 있었다.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나를 성숙시킨 시간이었다. 인생을 토론하고, 무전여행도 하고, 술 담배를 배웠다. 기억에 남는 것은 운동회 때, 온몸에 먹칠을 하고 대창을 들고 토인 흥내를 내며 운동장을 돌면서 토인 노래를 하던 그 시절이 내 청춘의 시기였다. 625전쟁이 끝난 1952년에 부산전시 가교사에서 졸업을 하니 중학시절 선생님의 소개로 경남중학교 교사가 되고 2년뒤, 대학 선배의 추천으로 부산대학의 조교수가 되었다. 같이 졸업한 친구들은 다들 유학을 가는데, 나는 조실 부모한 것이 한이 되어 결혼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였다. 친구들의 소개로 결혼하니 큰아들이 생기고, 두달이 뒤를 이어 재통을 피우는 가정을 이룬 나는 헌신적인 아내와 같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행복한 사나이가 되었다.

그런 나에게 예상하지 못한 젊은 교수에게 제공되는 Fullbright Scholarship의 기회가 왔다. 그 시대에는 부부동반의 외국유학은 할 수 없는 때라 혼자 미국에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결정하기 힘들었다. 아내와 의논한 결과Scholarship 기간이 1년이라 나만 미국에 가서 배우고 바로 돌아 온다는 전제하에 Scholarship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대학졸업 8년만에 다시 학생이 되었다. 이것이 나의 외국 비행기 여행의 첫 체험이었다.

여의도 공항에는 나를 환송하기 위해 누님들, 처가집 식구들이 나와 나를 격려해 주니 감사할 뿐이었다. 동경에 가니 처 외삼촌이 나를 반가히 맞아주어 그의 집에서 며칠 지냈다. 알고보니 나의 사촌형과 처 외삼촌이 친구란다.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때,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는 외삼촌의 격려가 오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외침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와이의 하와이 대학내 International House에서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온 Fullbright Scholarship 수상자들 50여 명과 같이 한 달 가까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마치고 나에게 배정된 University Missouri에 갔다. 대학에 도착하니 한국학생이 나를 반가히 맞아주어 감사했으며 그와 같이 하숙생활을 했다. 당시만해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적어 외국에 가는 사람은 \$100만 교환이 허용되어 나의 주머니에는 \$100이 전부였다. Scholarship이 Full Scholarship과 Tuition과 Living Expense까지 지급되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영어 실력이 형편없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학위에 대한 욕심이 생겨 집사람과 의논하여 아이들 셋은 처가댁에 맡기고 집사람은 유학오는 형식으로 하여 제2의 허니문 시작되었다.4년만에 학위를 마치고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에 취직이 되었는데 얼마 안되어 KIST가 설립이 되었다고 한국정부

서울에는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으나 나의 중학선배가 예과 기숙사를



최용완 (공대 61)

동아시아는 모든 문명의 어머니

현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짐승들처럼 살면서 해 뜨는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이래 5만 년 전에 동남 아세아에 이르러 정착된 촌락 생활을 시작하며 현대인의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4만 년 전에 동아시아에 이르러 사계절을 만나 겨울을 극복하는 농업을 시작하면서 인류문명이 시작하였다. 유럽지역과 북아메리카 대륙은 빙하기가 2만 년 전까지 지속하여 사람이 살 수 없었다. 고대 인도의 드라비디언 언어와 문화는 한국 언어와 동아시아 문화로 연결되며 산스크리트는 인도유럽어인 언어의 모태가 되었음을 최근에 연구하여 발표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저수지를 파서 물을 저장하고 흙을 모아 흙산을 지어 하늘과 조상의 영혼에 제물을 바쳤다. 석기시대를 맞아 멀리서 바위를 끌어들 조상의 무덤 위에 고인돌을 세웠다. 한반도와 주위에 4만여 개의 고인돌이 산재하고 나머지 4만여개는 이미 열린 바닷길 따라 서유럽 영국의 스톤헨지까지 산재해 있다. 농사짓는 신석기 문화가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전해졌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는 불을 피워 질그릇을 만들어 음식을 저장하였기에 고고학 발굴에서 동아시아 질그릇은 1만 년 전부터 나타나고 서남 아세아 질그릇은 5천 년 전부터 나타난다. 계절 따라 쌀과 조를 경작하여 음식을 만들었고 김치, 된장, 발효음식과 건조된 음식으로 겨울을 지냈다. 일찍부터 옷을 짜 입어 삼 옷과 비단옷을 가족들 함께 입었다. 토굴집과 온돌방으로 집을 지어 겨울을 지냈다.

흙산을 짓는 풍습은 요하 문명에서 돌산을 짓기 시작하고 적석총을 쌓았다가 금속시대에 바위를 다듬어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하였다. 만주 지린성 일대와 서쪽의 서안시 외곽에 수천 그루의 피라미드 유적들이 남겨있다. 동아시아의 흙

산은 북미대륙과 동남 아세아로 분포되고 고인돌은 유라시아 바닷길 따라 서유럽까지 분포되었듯이 동아시아의 피라미드는 세계 각 대륙으로 분포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한반도 북방과 만주일대에 석탄불은 고인돌 마을에서 금속을 생



산하기 시작하여 요하 문명의 금속무기와 금속 도구가 세계 어느 곳보다 먼저 나타난다. 무기는 사화를 통솔하고 도구는 인류 생활방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 인류 문명이 동아시아에서 시작하였다. 금속으로 만든 쟁기는 농업에 부흥을 일으켜 인구 증가를 초래하였고 나무를 다듬어 나무집, 나무배, 나무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육돌을 조각하고 바위를 쪼개어 돌집과 신전을 짓고 석굴을 뚫어 조각하기 시작하였다. 운강 석굴, 돈황 석굴, 용문 석굴, 아잔타 석굴 등 일찍부터 시작하여 서남 아세아에 전해주었다.

동아시아의 농사짓는 마을에는 소, 개,

돼지, 닭을 기르고 초원에는 염소, 양, 말을 길렀다. 나무수레는 사람이 끄는 인력거, 소가 끄는 달구지를 만들어 사람과 짐을 나르다가 쇠바퀴를 만들 무렵에는 일찍부터 만주 초원에서 자란 말들이 끄는 거마(車馬 Chariot)를 만들어 전쟁에 쓰였다. 바퀴문화는 큰길을 바르게 내어 사찰, 궁궐, 도시계획에 격자형 평면이 발달하였다. 한국, 중국, 인도, 일본, 중미의 고대 도시들이 바둑판 모양 격자형으로 이루어졌다.

금속무기와 거마 전쟁은 만주의 초원에서 시작하여 황하와 양쯔강의 중원을 차지하는 제국의 치열한 전쟁으로 변장하였다. 만주의 고조선이 중원의 하나라와 상나라로 이어지는 동안 승자는 중원을



차지하고 패자는 이미 열린 해변 길 따라 지중해에 이르러 아랍인과 아프리카 흑인들을 정벌하여 이집트 제국을 세웠기에 이집트 문명은 동아시아의 문명과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제국문화는 북미와 남미에 이르러 아스텍, 마야, 페루 제국을 세워 다스렸다.

동아시아 요하 문명에서 시작하여 고조선, 하, 상, 주, 춘추전국시대를 지나 기원전 250년쯤에 진시황제조선의 훈족은 동아시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내륙통로, 비단길을 열어 지중해 지역의 로마를 정벌하였다. 말을 타고 금속무기로 무장한 동아시아의 제국문화를 유럽에 전해 주어 로마의 전성기를 데려왔다.

12세기에 몽골의 칭기스칸은 비단길 따라 유라시아를 통일한 세계제국을 세웠다. 이 때부터 유럽은 몽골처럼 오늘의 세계지도를 만드는 인류의 사촌기 현대 역사를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종교, 도교는 해변 길 따라 동인도의 갠지스강에 불교로 이어졌다가 석가가 갠지스강에서 설법하는 때 중국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불교를 설법하였다. 인도의 아소카왕은 불교를 인도의 국교로 지정하여 인도의 서쪽 인더스강에 부흥하였다. 인도와 중국의 불교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의 도시국가 왕들이 인도와 중국의 불교사원에 와서 수련하고 돌아가 유럽문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한다.

불교가 세워진 이후에 600년이 지나 서남 아세아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다시 600년 후에 회교도가 세워진다. 계속해서 중세에 동유럽과 북유럽의 정통 천주교로 이어졌다가 현대 역사의 종교개혁을 거쳐 서유럽에 개신교가 설립된다. 서유럽의 개신교는 미국의 기독교 국가를 세워 전기, 자동차, 비행기를 발명하며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을 평정하였다. 미국 기독교의 선교활동은 동아시아의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종교는 문명의 힘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이제 다시 동아시아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토는 지중해 문화가 아틀란티스(모든 문명의 어머니)에서 왔다고 했고 유럽학자들은 지금도 아틀란티스를 찾고 있지만, 아틀란티스는 동아시아였음이 분명하다. 인류의 나이는 이제 사촌기를 맞아 현대 인류는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인류문명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상나라(1600 BC to 1046 BC) 금속 문화와 그리스(800 BC to 600 AD) 토기 문화를 비교하여 동아시아의 금속 문화가 유럽보다 3천 년 앞섰음을 보여준다.)

bryanchoi@cox.net
1- 949-721-1356
www.YongWanChoi.com
(위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책으로 준비되어 한국 문예계간지 <자유문학>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영문으로 번역할 미주 한인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에서 초청이 왔다. 그러나 우리집은 여기서 생긴 두아이를 합하여 다섯의 자식이 있는 큰 가족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귀국을 포기하고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은퇴하기까지 에서 연구 생활을 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만족한 삶을 지냈다. 나는 직장에서의 일은 집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나의 전부였다. 주말이면 Camper를 끌고 온가족이 즐기는 캠핑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과여서 남부지방

의 state Park까지 가보지 않은 공원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988년 조기 은퇴 후, 우리가족은 미국과 캐나다의 National Park 등을 여행하다가 1997년 내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한국여행을 단행했다. 이 여행에는 우리가족과 큰며느리 가족이 같이 간 43명의 가족여행이었으며, 가는 곳마다 큰 환영을 받았다. 2006년에는 우리가족만 2주간 고국여행을 하였다. 할아버지 묘소를 참배할때

는 우리가족 모두가 도열하고 참배하니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집 가족여행은 연례행사가 되고 아시아, 캐나다, 중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금년에는 아이슬랜드가 되었다. 내년에는 Vancouver Island에 간다. 옛날 흰 연기 뿜고 달리는 기차를 바라보던 소년의 꿈이 온세계를 나는 비행기 타기 가족여행으로 발달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뒤돌아 보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행복하며, 정 많은 형제 있어서 나를 키워주었고, 좋은 친구 있어서 고락을 같이 하고, 좋은 선생님, 선배들이 나를 도와주셨고 손 꼭잡고 같은 방향으로 64년간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집사람이 곁에 있고, 나를 항상 염려하는 자식들에 둘러싸인 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라는 예닐 성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본다.

Mt. Whitney 등반기: 거북이 승천기

민일기 (약대 69)



미국 본토(lower 48개 주)에서 제일 높다는 Mt. Whitney(14,508 ft/4,422m)를 등반하는 것은 모든 등산가들이 한 번쯤은 꿈꾸어 보는 꿈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Mt. Whitney에서 4시간 거리에 두고 있는 Los Angeles에 사는 나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산이 거기에 있다고 마음대로 아무때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에서 등산객이 하도 많이 와서 산이 몸살을 할 지경이라 매년 5월에서 10월 peak 시즌은 허가를 받아야만 우선 말을 먹을 수 있는데 이 허가란게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하니 운이 없으면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우리 산악회에서 10여 명이 신청을 했지만 모두 당첨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허가가 필요없는그외의 기간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혀 우리같은 초보자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다해도 살아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 난데없이 고교 후배가 당첨됐다고 하는게 아닌가. 그것도 7월21-23일 (2박3일)로 무리없이 등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당첨이 된 것이다. 나는 애초에 포기를 하고 막연히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산악회 김희장으로 부터 Mt. Whitney등반신청을 하라기에 일단 신청하고 말았다.

김희장은 8명의 등반자를 확정하면서 Mt. Whitney등반 신청자 면면을 보니 평소 정상으로 다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중에 제일 문제인 것 같다. 더구나 나는 평소에도 제일 산행에 늦게 출发的 시간 늦게야 정상에 나타나는 바람에 “거북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지 않은가? 그래도 거북이가 끈기는 있어 토끼를 경주에서 이겼다고 하지 않는가? 고교때 배운 양사언의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 이라도...”하는 시조가 생각난다. 비록 Mt. Whitney가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뉘이거든 오르고 또 오르면 뉘오르리 없것만은... 하고 속으로 다짐을 하고 해보지 않고 뛸지 안될지 어찌아니 하고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다. 큰 소리를 쳤지만 내심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이제 사방에 광고를 하고 소문을 냈는데 이제 와서 그만 돈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내가 요세미티 Half Dome도 오르고 Grand Canyon을 내려가 콜로라도 강물에 발도 담가보고, 양카트레일 (13,677 ft)을 발발기기는 했지만 결국 끝

냈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근데 그때는 벌써 6년전으로 좀 팔팔할때였는데이제 70이 다 되가는데 지금도 할수 있을까? 하필이면 등반하는 날이 최근에 한국에서 결혼한 우리 큰며느리가 한국에서 오는 날이다. 아들이 제 처가 오는데 꼭 가야하냐고 은근히 눈치를 준다. 야! 이젠 내가 네 아내오기전 몇년전 부터 계획한 것이니까 바꿀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제 배수진을 쳤다. 정상에 뉘오르면 아들 며느리 볼넷도 없다.

7월 21일

밤에 잠을 자는중 마는등하다가 5시에 잠이 깬다.침은 대강 어제 저녁에 다 싸놓았다. 일행과 함께 8시반에 LA를 출발하여 내가 좋아하는 395번 삭막한 황야 길을 3시간쯤 달리니 Lone Pine Visitor Center가 나온다. 그 곳에서 최종 permit을 받고 주의사항을 들었다. 비닐봉지 하나씩 주면서 배설물을 그 봉지에 수거해서 가지고 오도록 당부한다. Whitney에는 번소가 없으니 오염시키지 말고 수거하라는 지시이다. Lone Pine 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12마일 떨어진 Whitney Portal Trail Head로 향했다. 가는 길에 유명한 영화 필름박물관이 있고 흑성탈출 등 여러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Alabama Hill이 있다.

1시쯤 Trail Head에 도착해서 배낭을 정리하고 재보니 김모씨가 55파운드로 제일 무겁다. 나는 27파운드 그의 절반이다. 오늘은 대형히 3.8 마일만 가서 Outpost Camp에서 캠핑을 할 예정이다. 트레일 내내 나무도 많고 산세가 아름답다. 전에 갔던 King's Canyon과 비슷한 분위기이다. 멀리에는 완강하게 보이는 화강암바위로 된 Whitney가 그 자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보기에도 천길만길 깎아 놓은것 같은 산세에 기가 질리기도 한다. 곳곳에 눈 녹은 물로 시내가 넘친다. 작년 겨울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그눈이 아직도 쌓여 있는모양이다. 김희장은 미리 계획한대로 물을 최소한 건너는 코스로 우리를 안내한다. 한달간 연습한 보람이 있어서 그런지 배낭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Outpost 캠핑장 직전에 트레일이 물로 넘쳐 모두 등산화를 벗고 water shoes로 갈아신고 건너는데 물이 발목까지 올라오고 얼음보다 더차게 느껴져 1분이상 발을 담그니 아리고 아프다.

드디어 첫날 목적지인 Outpost Camp 캠핑장에 도착했다. 바로 옆에 폭포소리가 웅장하고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 쌓여 아늑한 분위기이다. 저녁을 먹고 텐트에 드니 옆의 폭포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자다가 폭포의 물소리 때문에 자는중 마는등 하다가 3시반에 일어났다.

7월 22일

3시반쯤 옆텐트의 선배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부시럭거린다. 나도 이미 잠이 깨있어서 일어나 조그만 강가에 어제 집에서 간단히 싸온 점심과 물 2리터와 개도레이

터 1병 (500ml)을 챙겨 넣고 판초와 wind breaker도 챙겨넣었다. 4시쯤 다른 대원들도 모두 일어났다. 모두 잠을 설치는지 부시러하다. 간단한 단팥빵과 커피로 아침식사를 하고 머리에 headlamp를 끼고 4:30분쯤 출발했다. 이제 부터는 본격적 오르막길로 주로 바위 위를 걷는다. 경험 많은 B씨는 너무 빨리 걸으면 금방 지친다고 천천히 걷도록 주의를 주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선두와 너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처음에는 캄캄해서 주위가 안보이고 몰소리만 여기서 거서 들리더니 한시간 정도 지나니 동쪽 골짜기에서 해가 뜨기 시작한다. 그 광경이 기가 막히고 장엄하다.



중간에 내가 우려했던 눈길로 골짜기를 건너는 곳이 나왔다. 아래를 쳐다보니 여기서 발이 미끄러지면 급경사를 따라 한없이 떨어져 밑으로 처박힐 것같다. 다행히 김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크렘폰 한쪽을 벗어준다. 한쪽을 신으니 안전하고 무섭지 않다. 이곳을 지나자 더 이상 어려운 곳은 없었다.



3시간쯤 걸려서 2.5마일 올라와Trail Camp에 도착했다. 이곳은 12,000ft 정도 되는데 여기 부터는 나무가 없고 황량한 바위투성이다. 여기서거기 텐트가 보이는 걸 보니 여기서 잔 사람들도 좀 있는것 같다. 여기서 모두 쉬면서 정수기로 새 물을 보급받았다. 나도 1리터 짜리를 새로 채워 넣었다. 여기까지는 선두팀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 따라 온것 같다. 이제 약명 높은 "99 Switchbacks" (2.2마일)과 Trail Crest (2.5마일)이 남았다. 나는 99 Switchbacks이 힘들다고 하지만 고작 2.2마일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다 보니 이게 소문인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닌란 것을 실감하겠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것같고 1시간남짓 올라 가다가 이제 반을 올라왔겠지 하고 B씨에게 물어보니 이제 20개정도 돌았단다. 그럼 여태 20%정도 밖에 못올라왔구나 하니 까마득하다. 이제 부터 숨이 차고 선두구름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 끝없는 기가 막히게 허락하였는데, 이게 오를 꼭 오르라는 신호 (p 20으로 계속)

시 "Whitney가 높다해도 하늘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뉘오르리 없것만은~"을 마음으로 되새기기 시작했다.



(99 switchback 에서)

군데군데 눈이 남아있어 switchback이 끊어 진데도 있고 건너기가 아슬아슬한데도 있는데 김희장의 외짝 micro crampon의 덕을 톡톡히 봐 3시간정도 사투 끝에 드디어 Trail Crest 에 도착했다.



(Trail Crest 에서)

이제 13,000ft가 넘는곳에 도착했다. 산소가 희박한지 속도가 나지 않고 쉽게 지친다. 이곳은 산능선으로 바위가 기가막히게 잘 생겼고 멀리 넘어 King's Canyon과 Sequoia NPO이 보이는데 등성등성 눈이 남아 있고 호수에는 살얼음이 얼어 있다. 이제는 마지막 2.5마일 Trail Crest만 남았다. 숨이차고 힘이 들어 죽을지경이지만 여기서 포기할수는 없다.



(Trail Cress 너머서)

Trail Crest 첫부분은 내리막이다. 아이고... 내리막이면 또 올라가야 하는데 하고 우선 걱정이 앞선다. 조금가니 세갈래 길 나오는데 이곳이 유명한 John Muir Trail과 Whitney정상으로 가는길이 만나는 지점이다. 완만한 경사가 계속되는데 길은 누가 닦아 놓았는지 아주 잘 닦아 놓아서 걷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완만한 경사와 돌길 이 한없이 계속되는것 같은데 지쳐서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여자등산객에게 물어보니 아직도 15마일정도 남았단다. Wow! 아직도 1.5마일이라면 2시간은 더 걸리겠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수는 없다. 하나님 이 날씨를 기가 막히게 허락하였는데, 이게 오늘 꼭 오르라는 신호 (p 20으로 계속)

가발과 함께 걸어온

나의 86년 인생

(Part 2)

이준형 (공대 48)

'가발 공장을 보고 싶습니다.'

"후..... 멀리네."

브렌트우드에서 크리스만 부사장이 묵고 있다는 호텔은 조선포텔이었다. 조선포텔은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이 투숙하는 등 지속되는 국빈맞이와 국제회의 장소로 명성을 쌓아나갔던 호텔이다. 1970년에는 20층으로 된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되어 당시, 국가의 성장속도와 맞물려 모든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던 곳이었다. 호텔입구에 들어서니 어떻게 알았는지 크리스만 부사장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수를 하는 그의 얼굴은 보니 연신 미소를 지으면서도 나를 살피는 그의 눈길을 읽을 수가 있었다.

"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요?"

"미스터리의 가발공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난처했다. 공장이라니, 사실은 나도 한번 가본적이 없었던 공장이었다.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가발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그래도 무조건 거절을 할 수 없어서 핑계를 대고 둘러대기 시작했다.

"아직,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없어서 나중에 보여드리면 안될까요?"

그러나 크리스만 부사장은 공장키나 시설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급히 연락을 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필적되었다. 절대로 불가하다며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 그때서야 그분께서는 나에게 공장 사정을 설명하셨다. 당시 집 마루에서 동네 여인들 몇명 데려다가 가발을 만드는 곳이라고. 때문에 만약, 크리스만 부사장이 방문해서 그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주던 오더를 다 취소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얘기를 듣고 나니 나오는 것은 한숨 뿐이었다.

'미스터 리가 50%책임지는 것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 모두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다. 하지만 솔직한 것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기에 발걸음을 돌려 나를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만 부사장에게로 갔다.

"연락해보니 사실은 공장이 아니고 집에서 여인들 몇명 데려다가 가발을 만들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보여드릴 것이 없으니 죄송할 뿐입니다.

화를 내리라 생각했던 크리스만 부사장은 큰 소리로 웃었다.

"미스터리, 걱정마십시오. 우리에게 납품하는 다른 국가의 가발 공장들도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환경을 보고 그 공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곳으로 갑시다."

할수없이 공장, 아니 아버지의 친구분 집에 도착했다. 난처해하는 사람들을 등뒤로 하고 크리스만 부사장은 가발을 제작하는 여인들의 손놀림이나 수북이 쌓인 가발제품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리고 알수없는 열은 미소를 지은 뒤 그집을 나왔다.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오더는 계속해서 늘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약속하나 해주십시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크리스만 부사장을 쳐다보았다. "앞으로 가발 제작과 납품하는 모든 부분에 미스터리가 50%책임지는 것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앞으로 10만불 이상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듣고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었다. 나보고 책임을 지라니, 그리고 10만 불이라는 엄청난 금액은 무엇인지, 하지만 골치 아픈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흔쾌히 약속하며 크리스만 부사장을 돌려 보냈다.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 부관장이던 장웅호씨의 얘기

이후 약속처럼 가발 제품 오더는 점차 그 양이 많아졌고 아저씨의 댁은 마루와 안방 그리고 아이들 작은 방까지 모두 가발 제작 공장이 되어버렸다. 당시, 다른 공장들의 가발 제작도 이와 별반 다르진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가발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여러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그중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 부관장이던 장웅호씨의 얘기가 재미있다. 그는 재임기간 원료수출 부문에서 돈모와 인모가 사용되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재미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한다. 돈모는 주로 브러쉬를 만드는 원료로 들어갔고 인모는 가발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따라서 인모 가발은 노동집약적인 수공업이므로 임금이 싼 한국에서 제조한다면 수지타산이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방문한 부르크린의 어느 유대인 가발공장에서 장웅호씨는 새로운 세

상을 경험했다. 그가 방문했을 때, 공장에서는 바늘을 사용하여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캡에 다 뜨는 방식으로 가발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만든 인모 가발은 시장에서 개당 200~300달러의 좋은 값으로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라고 결심을 굳힌 그는 유대인 제조업자의 동의아래 자신이 직접 제조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서울 답십리에 공나를 키우던 40평짜리 움집을 개조해 공원 30명으로 가발공장을 시작했다. 이때가 1965년 7월, 첫 제품으로 나온 수제 가발 100개들이 한박스가 수출되었던 것이다.

미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하는 중공에서 생산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다.

또한명의 가발 수출 개척자를 꼽는다면 바로 서울통상의 최준규 사장이다. 1965년 초여름 상공부 공업1국장 오연철은 수출전선의 사령관인 박충훈 상공장관을 수행하여 상공회의소 2층 간부회의실로 향했다고 한다. 이날 첫번째 면회자가 바로 서울통상의 최준규 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최사장은 나일론 실 같은 것을 수신했다. 묶어 한다발로 한 조그마한 물건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장관에게 이것이 가발원료이며 이것으로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자는 건의를 올렸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카락을 그대로 수출했습니다. 원자재로 일본에 판 것이죠. 그런데 가발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수공업적인 직업입니다. 여자가 손끝으로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꿰매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가발제조 붐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렴한 인건비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인모를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면 2~3배의 수출증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카락을 그대로 수출했습니다. 원자재로 일본에 판 것이죠. 그런데 가발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수공업적인 직업입니다. 여자가 손끝으로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꿰매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가발제조 붐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렴한 인건비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인모를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면 2~3배의 수출증가가 가능합니다."

"가발 공장 사장님이 IC와 관련해 무리한 부탁을 하시길래 정중히 거절했더니 제가 건방지다며 따귀를 때리시더군요. 그래서 항의했더니 또 때리시는 겁니다. 전, 도저히 그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화가 치밀었다. 직원을 진정시키고 당장, 아저씨 가발 공장으로 달려갔다. 급하게 달려온 나를 영문도 모르고 반기던 아저씨에게 나는 얼음장같은 말을 내뱉었다.

"이제 아저씨의 일은 더이상 못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저의 직원 따귀를 때릴 수 있습니까? 저의 직원을 때렸다는 것은 바로 저를 때린 것이매 저의 모든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3,000불 받자고 800불을 썼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이 가발로 인해 급격히 재미를 보고 있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던 양발 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발 사업은 수출도 어려웠고 더욱이 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웠다. 한번은 어렵게 물고를 터서 계약을 맺은 대만 의 한 수입상이 3,000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지요. 이렇게 대책없이 연락마저 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점잖게 대만의 수입상에게 전화를

걸어 미수금 지불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그 수입상은 "사정이 어렵다.", "양말이 안 팔린다."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우리 회사의 양발 품질이 너무 떨어져 자기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당시 거금 800불을 들여 비행기표를 끊었다. 주변에서는 이런 나를 만류했지만 사업의 신뢰성을 올바로 세우고 한인 사업가의 끈질김을 보여주고 싶어 무작정 대만으로 향했다. 아니라 다를까, 대만에서 만난 그 수입상에게 다그쳐 확인한 결과, 내 양말을 다 팔아먹고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내 돈 줄래, 경찰서 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마침내, 받지못했던 대금을 모두 받아냈다. 내 친구들은 3,000불 받자고 800불을 쓰는 내가 미련하지만 대단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나는 내 사업에 있어 이같이 확고한 룰을 적용시키고 있다. 사업은 무엇보다도 신뢰와 믿음이 제일이다.

"미스터리가 가발 공장을 직접 지으십시오."

하루는 내 밑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통통부는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사장님, 저 일 못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그만 두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 직원은 수출업무를 주로 맡아 하던 직원이었는데 나의 부탁으로 아버지의 친구분 공장 일도 봐주고 있던 직원이었다.

"가발 공장 사장님이 IC와 관련해 무리한 부탁을 하시길래 정중히 거절했더니 제가 건방지다며 따귀를 때리시더군요. 그래서 항의했더니 또 때리시는 겁니다. 전, 도저히 그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화가 치밀었다. 직원을 진정시키고 당장, 아저씨 가발 공장으로 달려갔다. 급하게 달려온 나를 영문도 모르고 반기던 아저씨에게 나는 얼음장같은 말을 내뱉었다.

"이제 아저씨의 일은 더이상 못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저의 직원 따귀를 때릴 수 있습니까? 저의 직원을 때렸다는 것은 바로 저를 때린 것이매 저의 모든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저씨를 뒤로하고 회사에 도착해 크리스만 부사장에게도 전화를 넣었다.

"크리스만 부사장님, 나 이제, 가발 사업에서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내 전화를 통해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크리스만 부사장은 갑자기 놀라운 제안을 나에게 했다.

"미스터리가 가발 공장을 직접 지으십시오. 우리 브렌트우드사에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인것 같다. 계속 오르는데 뒤 따라오는 젊은 이들은 아직도 힘이 넘치는지 앞으로 생생 잘간다. 저 앞에 8씨가 보인다. 나를 보고 기 다리고 있다. 눈이 덮힌 산등성이 옆으로 치 고 올라가야 한다고 한다. 한 발자국 땀 힘 도 없는데 마지막 고비인것 같다. OK... 힘 은 다 빠진것 같은데 이제 부터는 힘이 없 으면 오기로 가는 수밖에...5분걸고 3분쉬 고 5분 걷기를 하다보니..... 아! 드디어 사진 에서 본 정상의 대피소가 보인다.



(정상에서)

우리는 1시 15분쯤에 도착했으니가 내가 예 정한대로 8시간45분쯤 걸린것 같다. 거북이 답게 1시간 이상 선두그룹에 처했지만 애초 에 9시간을 예상했으니가 그렇게 늦은것은 아니다. 내려오는 길은 쉬울것 같은데 시간 은 마찬가지로 더디다. 아마도 오르는데 힘 을 거의 다 소모해서 그런지 발걸음이 무겁 다. 거북이 처럼 천천히 걷는데 가도 가도 끝 이 없다. 99 switchbacks을 내려오니 벌써 6시 를 넘겨 햇살이 힘이 없어 보이고 한기가 든 다. Windbreak를 꺼내 입고 물을 자주 마시 고 8시를 따라 내려오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 다. 나는 길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8시는 앞서 서 길을 잘 찾기도 한다. 어둡기 전에 내려가 야하는데 벌써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가다가 주저 않으면 일어나기가 싫다. 다시 Head Lamp를 켜고 마지막 구간을 터덜터덜 내려오니 드디어 우리 camp 불빛이 보이고 김권중씨가 누룽지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 다. 9시쯤 된것 같다. 그리고 보니 하루종일 입맛이 없어 못먹고 과자와 스넥만 먹은것을 깨닫았다. 누룽지가 구수하고 맛있다. 어두어 서 첫술을 찾을수 없어 이도 뒤지 못하고 침 낭에 들어가 꿀아 떨어졌다.

7월 23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 피곤이 싹 가 시고 개운하다. 간밤에는 폭포소리고 뒹고 피곤해서 꿀아 떨어져서 잘랐다. 일어나서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누룽지와 김병장 전 투식량으로 아침을 식사를 하고 Whitney Portal parking lot으로 향했다. 중간에Lone Pine Lake에 들러 사진도 한장 찍고 주위를 즐기며 그리 힘들지 않게2시간여 만에 주 차장에 도착했다. 내려오는 길이 아름다워 언젠가 다시와서 camping을 해도 좋을것갈 다. Portal 기념품점에 들러 뱃지 몇개 사 고 맥주한병을 마시는데 맥주맛이 기가막 혀다. 이제 언제 다시 올지 알수 없지만 좋 은 추억을 남기고간다. 이제는 어깨를 당당 히 펴고 한국에서 온 콘머느리 만나러 갈 차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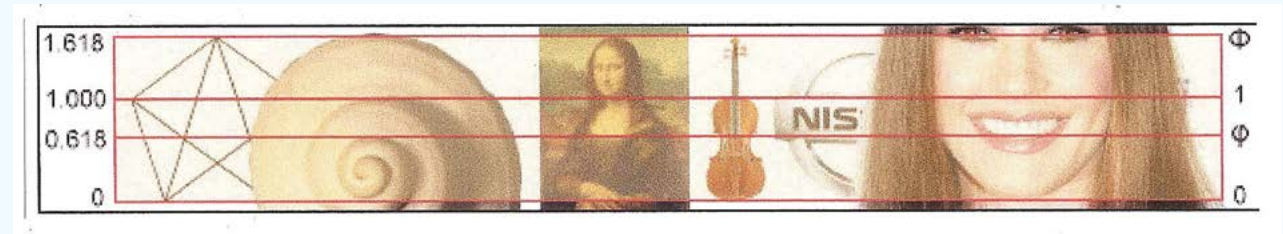


김광현 (미대 57)

황금비례 1:1.618...의 비밀

성서에 황금 율(Golden rule)이라는 말 이 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사람 이 사는 규범에 관한 것을 금과 육조(金科玉條)로 귀한 황금에 비유한 규율 로 표현한다.

응용해 오고 있다. 즉, 황금비를 흔히 1:1.618.. (무리수)의 비례로 말한다. 우 리가 주머니 속에 지니고 다니는 신용 카드는 5.4 cm x 8.5 cm로 가로 세로 의 비는 1:1.574로 황금비(Golden Ra- tio)인 1:1.618..에 근접하다. 즉, 어떤 두 수의 비율이 그 합과 두 수 중 큰 수의 비율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봄, 한 한인 슈퍼마켓에서 ‘황금비 율, 해 닙은 쌀’이라 해서 brown+sweet, brown+black+black beans의 묘한 내용 의 광고 쿠폰을 만들어 배포한 적이 있다. 이 황금 비율의 뜻은 판매하는 포장의 쌀 배합이 잘 났다는 뜻일 것 이다. 사람이 사는데 지켜야 할 규율, 규범, 비례 및 법규 등을 ‘황금’이라는 최상의 귀금속인 ‘금’을 연결해 황금 비례(黃金比例)라는 원리를 강조하기 도 한다.



인간 생활이나 사회 현상에서만 황금 비율이나 분할이라는 원리를 찾고 활 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 수학, 기하학 또한 조형학에서도 황금 비율 의 원리와 그 비밀이 규명되며 이를



황금비로 만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 보다 우리 눈에 더 안정되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인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1887- 1965)는 이테리의 수학자 피보나치 (Leonard Fibonacci, 1170-미상)의 수 열 원리를 착안, 인체 비례의 모듈(Le Modulor, 1950)을 고안했다. 이 수열 은 앞의 수와 그 다음 수를 합해 나가 면 그 비율은 황금비에 가깝다는 이 론으로 0 1 2 3 5 8 13 21 34 55 89 144의 연결로 3:5의 비율은 1:1.666, 13:21은 1:1.625가 되며 비례 숫자가 높아지는 144:233은 1:1.618..이 된 다는 것으로 이 비례는 꽤 아름답 고 안정된 비례로 규정하기도 했다. 1.618..의 비례는 그리스 문자로 파이

(phi)라고 알려져 왔고 황금 비(Gold- en Ratio), 황금 수(-Number), 황금 비례(-Proportion), 황금 분할(-Section), 황금 율(-Rule), 신성한 비례(Divine Proportion) 등의 유사용어로 사용돼 왔다.

서양의 역사적인 고대 건축물들과 조 각품들의 구조에서도 이 비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피라미드의 높 이 275에 폭 446 피트는 1:1.625, 황 금비에 가깝고 그리스 건축 및 조각 가인 피디아스(Phidias, 480-4320bc) 가 적용한 파르테논 신전은 1,005 피 트 높이에 1,654 피트의 전면 길이로 1:1.654의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건축 물을 세웠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조 각이나 건축물에 응용했는데, 미켈란 젤로의 시스틴 성당, 다빈치의 최후

의 만찬과 모나리자, 렘브란트, 라파 엘, 살바도르 달리 등도 황금비의 원 리를 그들 작품 제작에 많이 활용했 다.

기원전 300여년 전 기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집트 태생인 유클리드의 기초 기하학(Euclid's Elements)에서 최초로 기술된 황금치를 주장한 후, 많은 학자들은 황금비는 신화이며 허 구적인 것으로 미학적 진실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 존재성을 부인하고 ‘ 도구로서는 중요하지만 규칙으로서 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여 그 원리를 응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1.618..의 비례는 현대에 와서 우주 과학, 생명 과학, 디자인 및 신학 및 현대 성형 의 술 분야에 까지도 널리 응용되는 원 리가 되었다. 황금비는 실제 조개 껍 질, 식물의 꽃 잎, 송바늘, 해바라기 씨의 패턴 및 입체적인 사람의 신체 와 얼굴 등, 동식물은 물론, 자연의 여 러 형태와 크기, 균형과 질서 등에서 도 확인 할 수 있으니 이 황금비의 발 견은 인간 생활 및 인류 문화 향상을 위한 촉매제 구실을 한다고 하겠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이원택 (의대 65)

내가 어릴 때는 동네 입구 나지막한 산길 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있었 다. 고갯마루에는 성황당이란 조그만 헛 간에 무당의 장신구랑 동네 상여 등 ‘귀 신’ 딱지들을 보관하고 있어서 술래잡기 할 때도 들어가기를 꺼리던 곳이 있었다. 얼마 전 알래스카 크루즈 때 육지여행 으로 totem 공원을 둘러보았다. 대가족 이 같이 살았다는 씨족가옥 dan house 도 보고 왔다. 한국에는 묘나 궁전을 지 키는 석상이 있으나 삼림자원이 풍부한 이곳에는 장승으로 대신하여 어떤 장승 은 그 속에 사리를 보관하기도 한다. 물 론 장승의 주 임무는 한 가족의 ‘문패門 牌’ 내지는 한 씨족의 ‘문장紋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생물이지만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인류의 문화는 씨족사회, 지 역사회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장승 은 가족과 동네를 보호하는 신神이고 성 황당城隍堂이나 dan house는 부족과 씨 족을 묶어두는 혼혈이다. 이와 같이 ‘장 승 문화’는 민족의 단결심을 부추기는 촉 매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오만 잡신雜神을 다 믿으면서도, 일제 치하에 서 ‘미신 타파’라는 미명아래 절거가 시 작되어 한국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장승들을 보존하고 복 제해서 장승문화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의 장승들은 단순하지만, 이곳 의 장승들은 다양하고 또한 전설을 담아 놔서 예술의 경지까지 도달해 있다. 문자 문화가 약했던 북미 인디언들은 자자손 손 구전으로 내려오던 신화神話나 영웅 전英雄傳들을 나무에 새겨 놓는 것으로 가문家門의 정체성正體性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토템의 재료는 이곳에서 지천으로 자라 나는 삼목과 솔송나무이고 새겨진 표상 으로는 독수리, 까마귀, 비버, 곰, 여우, 물 개, 고래, 연어, 조개 등 이 지방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이며 그들의 모습을 무섭거나 우스꽝스럽게 의인화시켜 놓 았다. 재료로 쓰는 나무의 둘레는 어른 팔로 두 아름, 길이는 60피트까지 되는 거목들이다. 조각들도 대개는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까뮈와 끌과 망치를 써서 일 일이 쪼아내고 사포沙布로 문질러서 반 드럽게 연마한 후 순수한 천연염료를 써 서 색깔을 낸 것으로 어떤 것은 장승 하 나 만드는 데 2년씩이나 걸린다고 한다.

장승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과 돈이 필 요하다. 장승 한 개의 값이 백여 년 전 모

Totem 문화

포 100~200장 값에 상당했다니 추장들 을 빼곤 엄두도 내지 못했던 대공사였다. 조각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감을 잡은 예술적 안목과 부드 럽고 정교하게 깎아내는 손재주도 있어 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붙여놓는 장인의 신앙적 믿음과 내세에 대한 소망일 것이다. 장승에는 장 인의 뉘과 씨족의 얼이 배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신화의 Zeus에 상 응하는 Raven이라는 새인데 이는 독수리 몸통보다 더 큰 까마귀로 천지 창조와 삼 라만상의 조물주 역할을 하는 신神이기 때문에 항상 totem의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고 그의 부리는 앞으로 똑바로 뻗어 나 가 위엄을 더 하고 있다.

Raven의 탄생을 설명한 전설 한 토막, 옛 날 옛적 오누이 한 쌍이 오손도손 살았드 래요. 오라비는 누이 이외에 어떤 인간도 원하지 않았지만 여동생은 심심해서 죽 겠드래요. 어느 날 그녀가 외로움에 못 이 겨 연못 벼랑에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다가 연못 속에 달 갈만 한 흰 자갈을 발견하고 그것을 꿀꺽 삼켜 버렸드래요. 죽을 줄 알았더니 그 자 갈이 뱃속에서 부화가 되어 육동자를 분 만했지 뭐니까?

그가 태어나서 어찌 빠르게 성장하는지 그녀는 오라비의 눈을 피해 해변에 나가 산속의 모든 동물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 도움을 청했대요. 그녀는 그 애가 아주 힘세고 용감하게 자라나 오라비를 제압 하기를 빌었더니 마침내 두루미 한 마리 가 나서드래요. 어린애를 맡은 두루미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애와 같이 찬물에서 있었답니다. 그때는 찬물에 몸을 담 그고 버티는 일이 심신을 단련하는 첩경이었지요.

용감하고 씩씩한 청년이 돼서 돌아온 Raven을 그의 삼촌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서 죽이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맙 니다. 마침내 삼촌은 홍수를 몰고 와서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지만, Raven 은 새 가족을 뒤집어쓰고 하늘로 날아갑 니다. 하늘나라, 태양의 딸과 결혼해서 오 랫동안 살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보 니 지구가 온통 시커먼 구름으로 덮여있 지 뭐니까? Raven이 그의 큰 부리를 먹구 름에 집어넣고 아주 오랫동안 빨아들었더니 마침내 지상의 물이 서서히 빠지고 삼라만상이 다시 소생하게 되었답니다.

천지 창조의 신화는 대개 비슷비슷하다. 태초에 혼돈이 있었고 혼돈에서 양기와 음기가 갈라져 나와 서로 충돌하면서 불 순물을 제거하고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세상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다. Raven 신화의 오누이는 가이아(땅)와 우라노스(하늘) 애기로 근친상간의 억압에서 벗어 나려는 여성의 몸부림을 담아놓고 있다.

유럽에서는 자신을 억누르는 남성에게 복수하는 방편으로 자신이 직접 나서서 들 사이에 태어난 친자식을 활용했으니 여기서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무정란無精卵을 들고나와 피도 눈물도 없는 공격적 인 유럽인에 비해 문명에 순응하거나 패 륜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방어적 타산이 깔려 있다. 박학거세의 알 얘기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유럽의 신들은 모두 인간의 형상을 한 초 인간들이다. 그러나 아메리카 인디언의 신들은 모두 동물의 형상을 한 초 자연들 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전에 나가 무 엇을 기원할 때 꼭 희생물(sacrifice)을 가 저갔으나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 로 대신했다. 반면 자기 자신이 각고의 시 련을 겪으면서 인내심을 길러 나갔는데 이는 일종의 무형적無形的 sacrifice인 셈 이다. 단군왕검의 신화에 나오는 용녀의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Zeus가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천 동과 번개라는 상상용 무기였다. Raven이 파멸된 지상을 탈출한 것은 새 가족 덕택 이었고 그가 홍수로 뒤덮인 세상을 구제 한 것은 새 주동자리였다. 품은 안 나지 만 얼마나 소박하고도 ‘친자연적’인 일인 가?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복희씨伏羲氏, 신농씨神農氏의 얘기도 다를 바 없다. 대홍수 얘기는 그리스 신화나 성경에도

나오지만 약 1만 년 전 제2차 빙하시대 가 풀리고 나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 작된 것으로 추정할 때, 아메리카 인디언 의 역사도 최소한 5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까지의 정설은 약 1만 년 전쯤 시베리아 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베링해협이 녹 지 않았을 때 아시아 대륙에서 걸어서 건 너온 민족이 에스키모들이라고 한다.

불모의 사막, 물결에서 일어난 청기스칸 족도 한때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었으나 북미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한 번도 세 를 떨쳐본 적이 없다. 도피와 패망의 연속 이었다. 아마도 실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totem 문화 덕분이었을 것이다. Totem 문화에는 악육강식의 법칙이 없다. 모두가 공존한다. 그리고 남을 해했을 때는 반드시 응징을 받는다는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Tingit-Haida 족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개굴녀(Frog Woman)가 화산녀(Volcano Woman)로 변한 사연이 있다. 어느 화창 한 날 어린 왕자가 3명의 토래와 연어 사 냥을 자살을 시도하거나 무정란無精卵을 들고나와 피도 눈물도 없는 공격적 인 유럽인에 비해 문명에 순응하거나 패 륜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방어적 타산이 깔려 있다. 박학거세의 알 얘기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는 생명에 대한 경외사상으로 인간이 비록 먹고살기 위해 동물을 죽이지만 잔 혹 행위는 금기이며 죽은 동물의 몸과 가 족을 존중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그들 은 물고기를 포획하고 돌아오는 뱃길에 서도 죽은 바다 생명에게 드리는 영가를 구성지게 부르며 노를 저었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의 Orpheus와 Eurydice에 버 금가는 전설 한 자락, 조실부모하고 외삼 촌 집에 가서 눈칫밥을 먹던 Gunarh이라 는 청년은 꽃 같은 처녀, 외사촌 여동생을 차지할 일념으로 열심히 심신을 단련하 여 그 지방에서 제일가는 물개잡이가 됐 다. 항상 온 씨족이 먹고도 남을 물개를 잡아 오는 Gunarh를 데릴사위로 삼은 것 은 당연지사인데 어느 날 새색시가 수달 피를 씻으려고 바닷가에 갔다가 거대한 돌고래에 의해 해저로 납치됐다고 한다.

씨족 예언자의 조언으로 간신히 해저 세 계에 도달한 Gunarh는 눈먼 거위들이 땅 바닥을 헤 져는 것을 보고 칼로 그들의 눈 을 찢어주고 안내를 받았다. 도중에 한 나 무꾼이 도끼가 부러져서 울고 있길래 침 을 바르고 콧길을 불어 도끼를 고쳐준 다 음 나무꾼과 그의 친구들 도움으로 자기 각시를 되찾아 용궁을 빠져나온다는 얘 기인데, 그리스 신화는 비극으로 끝나지 만 이 이야기는 happy ending으로 끝난 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בל주부 전: 토끼와 용궁> 얘기는 단수가 꽤 높은 편이다. (p 24 아래로 계속)



이중희 (공대 53)

내가 만든 공식

나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는 정 반대의 성격의 소유자다. 하지만 미주 동창회보 제 279호, 2017년 7월에 발간된 “노후 준비를 위한 7가지 원칙” (Page 18) 중 “제 6원칙: 평생공부”를 읽고 용기를 내어 내가 40여년 간 꾸준히 연구하여 세계 최초로 만든 공학 공식을 하나만 소개한다. 이것은 지극히 복잡한 과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문제의 개요와 결론만을 여기에 소개한다.

인터넷에서 “World’s Disasters of Sewer Corrosion, Collapse and Explosion” 또는 이와 비슷한 제목을 탐색하면 전세계의 여러 곳에서 자주 자연 발생하는 재앙으로 인하여 수천 명의 인명 피해와 건물 폭발의 재앙을 볼 수가 있다. 미국에서만 이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 파이프의 보수관리에 사용되는 돈이 자그마치 연간 \$140억 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지만 전세계의 통계는 알수없다. \$140억이란 거액을 매년 소모해도 이것은 Crown Spray Process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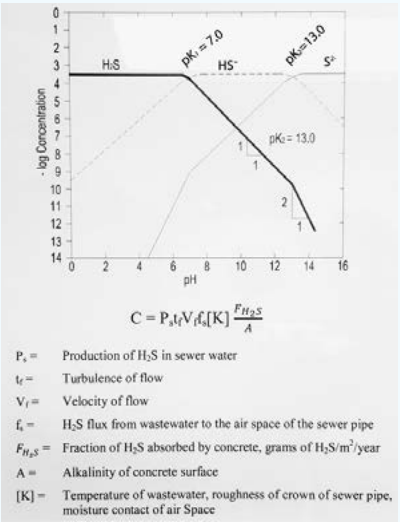
는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수명이 불과 7~9개월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과학자들이 왜 영구적 또는 반 영구적인 하수관의 부식, 붕괴 또는 폭발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 못하는가 하면 첫째: 하수파이프내에 흐르는 물의 95%는 사람들이 화장실 또는 부엌에서 내보내는 인간의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 더럽고 악취가 나는 이 방면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과학자가 없고, 둘째: 지하에 있는 하수 파이프내의 급속도로 흘러가는 그 더러운 폐수에 관한 연구를 하자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실수 또는 실족하여 하수에 빠지면 그냥 죽기 때문이다.

내가 정부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이 방면의 연구도 꾸준히 했었고 1991년에는 MIT에 초청되어 나의 하수 파이프의 부식, 붕괴와 폭발에 관한 연구 과정을 교수들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한 후 그들의 나에 대한 격려와 높은 자

극에 힘입어 최근까지 40여년간 이 방면에 연구를 계속해 왔다.

그 더럽고 악취가 나는 인간의 배설물 중에는 이온이 다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이온은 무기상태에서 H2S라는 악취가 나는 개스로 변하며 그H2S는 하수 파이프내 윗부분에 살고 있는 Thiobacillus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H2SO4 라는 강산성으로 변하여 콘크리트 파이프를 부식시키게 된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학설이다. 만일 H2S가 CH3나 C2H5같은 Radical과 결합하면 RSH(Mercaptans)라는 독극물이 되어 사람을 혼수상태로 만든다. 한국에서는 하수 파이프의 붕괴 현상이 극히 심한 것으로 듣고 있다.



40여년 간의 이 연구에 사용된 약품만 100여 가지가 넘으며 세계 최초로 하

수 파이프의 부식, 붕괴, 폭발을 방지하는 공학적 공식을 만들었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위의 공식을 만드는데 40여 년이 걸렸으며 20개의 화학 방정식과 2개의 생화학적 미분 방정식이 이용됐고 2013년에 이 연구 결과로 세계 최초로 U.S. Patent (미국 발명 특허)를 받았다. 만일 내가 이 특허를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Marketing만 잘 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라는 허황된 꿈도 꾸었지만 “내 나이에 돈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나를 잘 아는 MIT와 Harvard대의 교수들의 권유로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국제 과학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Chemical Sciences Research와 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ing International에서 출판 했고 2016년 3월에는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 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12,000명의 전세계에서 모인 과학자들 앞에서 Presentation을 했고 ACS로 부터 “Certificate of Merit”의 상장을 받았다. 하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연구 도중 나를 도운 사람은 Aquatic Chemistry의 저자이며 Cal-Tech에서 오래 전에 Retire한 James Morgan 교수와 USC의 James Lu 교수 (현재는 중국 Peking 대 교수) 이며 이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Email: maurisonconsult@gmail.com
Website: www.choonghrhee.com

다. 고국에 갈라치면 온갖 일들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전망좋은 산 속에 오랫동안 외롭게 계시는 조상묘를 찾는 산행은 언제나 우리를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간다. 호랑이 담배 피울적 이야기부터 동네방네 소문까지 출발에서 도착까지 몇 시간이고 최신 뉴스처럼 들려준다. 형님은 반듯한 자세로 항상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안전안전이 최고의 운전이라며 조용히 앞만 보고 달린다. 평생을 운전하면서 그의 겸손한 운전 태도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노 티켓 30년에 가장 싼 보험료를 낸다고 한다. 옆 모습에서 배운대로 부자길로 달려간다.

발품을 팔아 건물을 찾아 행재를 만난다. 천성이 근면하면 법적으로는 없다고 한다. 20년 전부터 하숙집을 운영하는 가까운 장로님은 부동산 멘토이다. 진흙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건물을 찾아다닌다. 일단 손 안에 들어오면 기름치고 광내서 건물이 진주처럼 빛나게 만드는 근면한 재주를 가졌다. 날이되면 날마다 쓸고 치우니 뒷 골목도 앞 길처럼 깨끗해진다. 발품을 파는 만큼 기본급은 쌓인다는 그의 간명한 지혜가 마음속에 자리한다. 따라하기 십수년에 에퀴티가 쌓여간다.

안철수 교수는 수백명 멘토가 있다고

한다. 드라이버 우드 하나로 18홀 골프를 칠수 없듯이 다양한 멘토들이 돕고 지침을 얻으면 그는 행운아이다. 액션 배우 성룡이 내프킨으로 식탁을 닦는 모습에서 어느듯 멘토가 되었다. 가끔 식당에서 빈그릇은 모아주거나 물수건으로 앞자리를 닦는 일은 멘토에게 배운 일이다. 안철수 동문도 크고 작은 멘토덕에 대통령후보로 성장했나보다.

평정심이 전문인의 마음이라고 배운다. 회계업무는 때때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한다. 테니스 시합뒤에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참가상을 탄거나 진배 없다. 당대 최고의 전문인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돈앞에 약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이야기한다. 10여년전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나 이번에 갔을 때나 실내에는 행장들과 CEO들의 화환이 환하게 밝히고 맞이하고 있다. 밤하늘의 북극성은 길 찾는 나그네의 나침반이 되듯이 그는 동업자로서 흡모의 대상으로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다.

교회당에 모인 가슴들에 피리소리가 울려 퍼진다. 깊은 산골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은 흐르고 흘러 어디로 올라가나. 조용한 아우성이 가슴을 두드린다. 고마운 멘토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감사합니다.



연봉원(문리 61)

뉴욕 변호사 시험 도전기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오늘날 외국여행이 자유화되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국교가 맺어져 있어 뜻만 있으면 어디든지 여행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1960년 대의 우리 나라 실정이었다. 당시에 만일 누군가가 우리 나라가 미국에 승용차를 수출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면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을 것이다.

4.19 세대인 나는 4.19 혁명 후 사회 분위기가 일시에 변하고 의욕이 넘쳐 흐르는 것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느꼈는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더니 마구 잡이로 학생들을 구속하고 어제까지도 존경의 대상이던 고명한 교수가 정부의 어용(御用) 교수로 돌변하는 세상에 온갖 정나미가 떨어졌다.



내가 결정적으로 외국 이민을 결심한 계기는 영화관의 조조(早朝) 할인제였다. 할 일 없는 청년으로 득시글거리는 데 착안한 극장이 아침 8시에 시작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반값으로 할인 한다고 선전하자 극장은 대학생으로 초 만원이 되었다. 이것을 보고 우리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세계 어디에 아침 8시부터 영화관이 대학생으로 초 만원을 이루는 나라가 있겠는가?

5.16 후 박정희 대통령은 과밀 인구와 실업자 해결 그리고 현 정부에 불만을 품은 세력을 제거 하는 방책으로 이민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마침 브라질에서 농업 이민을 받겠다고 해서 이민 문호가 열렸다. 난 남미고 아프리카고 간에 어디든지 외국으로 나가고 싶었다. 어렵게 노력해서 1964년 1월 18일 브라질로 가는 이민선에 몸을 실었다.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동포도 거의 없는 브라질에 가서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나 젊음과 의지 그리고 성실성 하나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생기자 공부를 계속할 마음이 생겼다. 나의 친구들은 브라질 말인 폴투갈어를 배울 용기가 없어서 대학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지만 나는 독하게 결심하고 한 1년 준비한 후 법과 대학에 입학하였다.

브라질 법과 대학은 5년 과정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경주야독(晝耕夜讀)으로 5년 후에 졸업을 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다. 변호사 자격증을 받아 쥐고 나니 감개가 무량하였다. 더군다나 부모님과 가족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내 책임을 통감하였다. 변호사 라이선스를 받아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법률 사무소를 개업했다. 당시만 해도 한인 변호사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업무가 폭주하였다. 이것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召命)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다.

그리스의 원형 극장처럼 생긴 강의실에 학생 좌석이 정해지므로 강의 하는 교수는 어느 자리에 앉은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 있다. 한국처럼 대리 출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강의 도중에 교수는 실례 없이 이름을 불러서는 질문을 하고 그 학생의 대답이 시원치 않을 때는 다음 학생을 지적 하고 하는 식이다. 준비를 어설프게 하고 수업에 들어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미국은 법과 대학이 아니라 법과 대학원 제도로서 그것도 3년이나 공부해야 한다. 내 나이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3년간 공부만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외국에

학교에 대학 4년까지 마친 우수한 학생들과 영어로 경쟁한다는 것은 그야 말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무모하게 생각되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몇몇 교수는 심한 보스턴 사투리를 기관총처럼 내 뿜으며 강의 하는데 받아 쓰는 것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다. 미국 법과 대학원 (Law School) 강의는 약 100 년 전 하버드 법과 대학장이 시작하였다는 일명 <소크라테스 식 강의법>을 사용한다. 교수가 일반적으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2,500년전 아테네의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문답식 강의다. 아무 학생이나 예고 없이 불러서 질문을 하면 학생은 즉시 답을 해야 한다.

그리스의 원형 극장처럼 생긴 강의실에 학생 좌석이 정해지므로 강의 하는 교수는 어느 자리에 앉은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 있다. 한국처럼 대리 출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강의 도중에 교수는 실례 없이 이름을 불러서는 질문을 하고 그 학생의 대답이 시원치 않을 때는 다음 학생을 지적 하고 하는 식이다. 준비를 어설프게 하고 수업에 들어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미국은 법과 대학이 아니라 법과 대학원 제도로서 그것도 3년이나 공부해야 한다. 내 나이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3년간 공부만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외국에

나아 들어 외국에 와서 우왕좌왕하는 나를 도와준 것은 우리 유학생들이었다. 나 이 많아서 공부하겠다고 온 나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며 강의 내용이라던가 각 교수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채 받아 쓰지 못한 과목의 요점을 정리한 노트를 빌려주는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또 한번 진한 동포애를 느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끔 가다가 점심이나 저녁을 사는 일이었다.

나는 미국 법과 대학원생들의 열심히 공부하는 태도에 놀랐다. 밤 11시 30분까지 도서관은 학생들로 꽉 차 있다. 시험 때는 24시간 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새벽 2, 3시에도 만원인 것을 보고 미국 학생들은 놀기도 열심히지만 공부도 죽기 살기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녀본 한국, 브라질, 미국 대학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이 제일 공부 안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만학(晩學)이기도 하지만 젊은 학생들을 따라 가려고 아침 6시부터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지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강의를 따라갈 자신이 없었다. 혹자는 나보고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 법학 공부 하는 것은 쉬웠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이나 브라질은 대륙법(大陸法 Civil Law) 계통이지만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미국을 위시하여 영미 법(英美法 Common Law) 계통이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차라리 브라질 법과 한국 법에 공통점이 더 많다. 미국 법과 대학원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셈이었다.

이렇게 보스턴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서는 다행히 졸업을 하게 되고

학위도 받았다. 졸업을 할 때쯤 뉴욕 변호사 응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내 운명을 걸어볼 욕심이 생겼다.

졸업 후 일단 뉴욕으로 주소를 옮겼다. 뉴욕 변호사 시험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처음에는 변호사 윤리 규정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 시험 준비 코스 같은 학원이 있다. 뉴욕에 와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무사히 일차 관문을 통과 하였다. 그 다음에는 본 시험이 있는데 매년 7월과 2월 일 년에 두 번 실시한다. 사람들이 뉴욕 시험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시험 과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 (州) 변호사 시험 과목이 8가지 이내인 것에 비해 뉴욕은 무려 23 가지나 된다.

뉴욕은 이틀간 시험을 본다. 첫날은 뉴욕 법, 주관식 필기 시험이다. 오전에 3 문제 오후에 3 문제 총 여섯 문제만으로 23 과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문제에 여러 과목에 대한 문제가 겹쳐서 출제된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주관식 필기 시험을 보는 동안 뉴욕 법에 대해 오후 25문제씩 총 50 문제를 객관식으로도 시험 본다. 필기 시험 문제는 어떤 주제를 설정해 놓고 논하라 하는 논술식인데 매 문제에 약 6-7개의 이슈(issue)를 뽑아서 논해야 한다. 한 문제를 읽고 약 7-10 페이지에 해당하는 답을 쓰는데 주어진 시간은 50분.

나는 본래 악필(惡筆)이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신경이 쓰였다. 아무리 잘 썼더라도 채점관이 못 알아보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모든 글을 필기체가 아니라 인쇄체로 썼다. 인쇄체로 쓰면 속도가 떨어져서 분, 초를 다루는 시험에는 불리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의 속도를 내서 인쇄체 쓰는 연습을 했다. 시험관이 보기 편하게 한 칸씩 띄어쓰기 (double space)를 하는 것도 연습해 뒀다. 필기 도구에도 신경을 써서 여러 개의 연필과 펜을 준비했는데 볼펜처럼 생겼으나 쓸 때는 만년필처럼 잉크가 술술 나오는 일제 볼펜을 준비했다. 지우개도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았다.

다음날은 미국 거의 모든 주가 같은 시간에 보는 객관식 시험. 오전, 오후로 나뉘어 오전 3시간 동안에 100 문제, 오후에 3시간 동안 100 문제의 정답을 맞혀야 한다. 한 문제에 1분 45초 밖에 시간이 없다. 그래야 겨우 다시 한번 살펴 볼 시간이 된다. 헌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지문

이 반 페이지 이상 된다. 한 번 읽고 답을 알아 내야지 두 번 읽을 시간이 없다. 객관식으로 4개 항목 중에서 맞는 답을 고르는 것인데 그 답이 그 답 같고 그 중 두 개는 아주 비슷하고 정답도 그 말이 그 말 같은 알송달송 한 것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if.... only if..., unless... 가 겹치기로 나오면 그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의미를 모를 경우도 있다.

한 수 더 떠서 4가지가 전부 정답이지만 그 중 가장 좋은 답을 고르라던가 4가지가 다 틀린 답인데 가장 틀린 답을 고르라고 할 경우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미국에서 자라지 않은 외국인들이 알아 맞힌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수 밖에 없다.

하루에 10 시간 이상씩 매일 공부하고 2000년 7월에 시험을 치려고 뉴욕주 수도인 올바니(Albany)로 갔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데서나 잘 자는 편인데도 호텔 옆 방의 젊은 애들이 밤새도록 부스럭 거리는데다가 긴장이 됐는지 밤을 하얗게 새웠다. 아침에 정신을 차리려고 커피를 마셔대고 보니 그 날 밤 또 한참도 못 잤다. 이렇게 사흘씩이나 밤을 새우고 시험장에 들어 가니 몽롱 한 것이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를 막 물고 시험을 다 보고는 어쩌면 합격 할지도 모른다는 일루의 희망을 안고 뉴욕으로 돌아 왔다.

시험 발표는 11월 말 경, 발표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서 맨허튼 소재 은행에 취직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요커들 틈에 끼여 출퇴근 하며 일하는 재미도 괜찮았다.

드디어 운명의 11월, 그 날이 왔다. 밤 12시 1분에 인터넷으로 발표되는 합격자 명단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 이름은 없었다. 내 이름은 고사하고 비슷한 이름도 없었다. 실망! 대 실망! 내 일생에 불한격이라는 최초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모든 것을 때려 치우고 브라질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해 봤다. 눈 앞에 어른거리는 가족, 언제나 나를 위하여 기도의 생활을 하시는 노부모님, 그리고 장도를 축하 하면서 환송 해준 친구들 생각을 하니 도저히 맨 손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좌절 할 수는 없다. 칠전팔기(七轉八起)라는 옛 말도 있지 않은가. 마음을 다시 고쳐 먹고 다음 2월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풀 타임(full time)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큰 문제였다. 누구

나 다 가지고 있는 하루 24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했다. 내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교만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번 반성도 했다.

각오를 새롭게 하고 미국으로 떠나오던 초심(初心)으로 돌아갔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맨 처음 한 것은 티비 없애기. 그리고 골프 채도 가방과 함께 아는 사람에게 줘버렸다. 신문도 눈 앞에서 쓰레기 통에 던져 버렸고 한국, 브라질에서 오는 각종 간행물을 봉투도 열지 않은 채 버리고 할 거방 속에다 자물쇠로 잠가 버리고 시험 끝난후 보기로했다. 두꺼운 시험 준비용 교재를 찢어서 항목 별로 여러 권의 얇은 책으로 만들어서는 손가방에 넣고 다니며 앉으나 서나, 지하철, 버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읽었다. 출장 중인 비행기 속에서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호텔 방에 파묻혀서 읽고 또 읽었다. 나에겐 토요일도 일요일도 휴일도 없었다. 크리스마스도 설날도 없이 지나갔다. 시험 때가 가까워 오자 직장에 일주일간 휴가를 냈다.

드디어 2001년 2월 말, 다시 도전했다. 이번에는 뉴욕 시내에서 시험을 봤는데, 변호사 협회가 장소를 못 구했는지 88번 부도가 세관 창고가 시험장이었다. 책상 밑으로 불어대는 매서운 겨울 바람이 발을 저리게 하였다. 저번 시험 실패 이유가 시간(time management)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다가 마침내는 시간에 쫓겨서 나머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어서 이번에는 문제 당 시간 배분을 정확히 하고 정해진 시간이 넘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답할 수 있었다. 수 백 명의 수험생들을 둘러 보니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보였고 가을에 콩 나기 식으로 30, 40대도 가끔 있었다.

나는 시험 기간 중 건강에 이상 없이 끝까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특히 우리 노 부모님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 했다. 아무리 일생을 건 시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 나면 당장 달려가 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오전에 3시간 시험 친 후에 한 시간 동안 점심 시간이 있다. 지난 7월 시험 때는 점심시간에 밥맛이 없어서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늘어져 있던 것이 생각났다. 이번에는 점심으로 훈제(燻製) 연어를 온박지에 싸 가지고 가서 먹었더니 기운이 났다. 또 먼저 이번에는 밤을 꼬박 새워서 시험 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었기에 아예 수면제를 먹고 일찌감치 푹 잤더니 다음 날 기분도 상쾌하고 컨디션이 만점이었다.

첫날 오후 시험이 시작되어 약 한 시간이 지난 무렵이었다. 내 앞에서 시험 보던 25세 가량의 미국 아가씨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간질 비슷한 발작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급히 응급 요원들이 와서 신고 나갔지만 분위기가 한동안 어수선했었다. 아마 시험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그리 된 것 같았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실려 나가는 것을 보니 갑자기 두려워졌다. 나한테도 심장 발작이 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시험을 무사히 치렀다. 기분이 차분한 것이 먼저 시험 때에는 완전히 달랐다.

2월에 친 시험 결과는 5월에 발표된다. 그 5월이 영겁(永劫)의 세월이나 되는 것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시험 발표 때까지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코메디를 봐도 하나 우습지 않았다. 늘 목에 가시가 걸려 있는 기분으로 지냈다. 5월이 가까워 질수록 아무리 태연하려고 해도 점점 더 불안해 지기만 했다.

드디어 5월 8일 0시 1분에 합격자 발표가 인터넷 상에 뜬다는 소식을 받았다. 5월 7일 밤, 내 앞날을 갈라 놓을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고 느꼈다. 나는 마음을 크게 먹었다. 밤 12시까지 목을 빼고 기다릴 것이 아니다. 내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여 천천히 보리라 마음 먹고 일찍 자버렸다.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으나 컴퓨터를 켤 용기가 나질 않았다. 일부러 태연을 가장하고 마음에도 없는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서류도 들춰지만 무엇을 봤는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심 호흡을 한 다음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합격자 명단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 이름을 찾아 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며 눈에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누구한테라는 생각도 없이 손 가는 데로 다이얼을 눌렀더니 아내가 나왔다. 이 순간을 위해 수 많은 말을 준비 하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하는 한마디 말 밖에는.

-끝-

(p 21로부터) 유지하기 짝이 없지만 이 전설은 첫째, 사냥할 때 필요 이상으로 잡으면 벌을 받는다는 점과 둘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얹어맨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스 신화의 두 교훈도 첫째 너무 많다고 자만하지 말라, 둘째 인간으로서 네 한계를 알아라이다. 샤머니즘(Shamanism)은 휴머니즘(Humanism)이다. 세상에 유지한 것만큼 사람의 심금을 군드리는 것이 어디 또 있는가. 신의 반열에 오른 Raven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연어를 포식한

종놈의 이빨 사이에 낀 생선조각을 보고 어디서 연어가 났느냐고 다그쳐 물었고 한 번은 새들로 하여금 수금 한 마리를 죽여놓고 그 놈을 다 먹은 후 암곰에게는 생선 대신 뜨거운 자갈로 가득 찬 halibut 오줌통을 먹여 죽여서 그것마저 다 먹여 치웠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식욕이다. 성욕은 저리가기이다. 우리 민화民話 중에 호랑이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수수팥떡을 주고, 다음

에는 백설기, 그 다음에는 인절미를 뇌물로 주는 장면이 나온다. 배달 민족이 박정희 씨가 나올 때까지 대대로 주린 배를 채우지 못했던 것처럼 이곳 인디언들도 첫 번째 민생고가 배고픔이었던 모양이다. 배가 고파울 때 유럽인들은 약탈하고 동양인들은 참선한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쩐지 우리와 같이 생겼다. 에스키모들을 보면 우리가 1-4후퇴, 피난 다닐 때 찍어 놓은 사진과 다를 게 없다.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덩

치가 큰 우리의 아저씨, 아줌마들을 판에 박았다. DNA 검사를 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사고방식도 조상숭배, 자연경외, 안빈낙도, 내세염원 등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다.

Totem 문화가 반만년 전 우리의 장승문화가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이라면 이제 우리 한韓 민족이 미 대륙에 뿌리내릴 문화는 과연 무슨 문화일 것인가?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만만한 기부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USD)		총 \$203,070		[2017. 8. 23. 약정기준]	
▶ 홍진	간호대 100,000	▶ 주종광(약대, 허지영(문리대)	40,000	▶ 박종수	수익대 10,000
▶ 지흥민	수익대 10,000	▶ 고광선	공대 5,000	▶ 손재욱	가정대 4,000
▶ 조무상	법대 2,520	▶ 윤상래	농대 2,100	▶ 신응남	농대 2,000
▶ 임창희	공대 1,500	▶ 최정웅	공대 1,200	▶ 김기태	의대 1,000
▶ 김명숙	간호대 500	▶ 로렌스한	대학원 500	▶ 문순덕	간호대 500
▶ 오인환	문리대 500	▶ 윤영자	간호대 500	▶ 이상강	의대 500
▶ 박태호	치대 300	▶ 박혜옥	간호대 300	▶ Chang Lee	공대 250
▶ 김용구	공대 200	▶ 유시영	200	▶ 이강원	공대 200
▶ 익명	200	▶ 권기현	사대 100	▶ 김동광	공대 100
▶ 박상원	음대 100	▶ 성주경	상대 100	▶ 안선미	농대 100
▶ 장순열	사대 100	▶ 정원자	농대 100	▶ 한재은	의대 100
▶ 함은선	음대 100	▶ 허유선	가정대 100		



이렇게 모인 후원금
전액은 선한인재 장학금
으로 쓰입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월 생활비 \$300를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nu.or.kr에 방문하시어
미주재단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거나
NY Office 전화 212-768-9144
LA Office 전화 213-435-19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미주 동창회 제14대 윤상래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Y.]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 212-768-9144 Fax : 212-768-4494 E-mail : kenneth@klcpagroup.com
Tel : 213-435-1974 E-mail : america@snu.ac.kr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57 명

남가주 김재영 (농대 62) 김정희 (음대 56) 노명호 (공대 61) 박윤수 (문리 48) 박중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흥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뉴욕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흥 (치대 64)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플로리다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캘리포니아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이사 (교인) - * 한병이상 내신 분
---	---	--	--	--	---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기부 동문: 28명 / 총회원 6431?명

전회장단 이월금 47,347.11	장학금 임필순 (의대 54) 100	김은한 (의대 60) 750 김제호 (공대 56) 100 윤상래 (수의 60) 40,000 이재신 (공대 57) 2,000 정정옥 (의대 60) 1,000 정태영 (문리 71) 100 최홍균 (공대 69) 1,000	오인환 (문리 63) 200	
총동창회 보조금 3,000.00	남가주 김영순 (음대 59) 200 최중권 (문리 59) 200		필라델피아 김태환 (법대 48) 200 송영두 (의대 56) 500 조화연 (음대 64) 150	
총동창회 오찬 협찬 3,000.00	북가주 이성형 (공대 57) 150		커네티컷 유시영 (문리 68) 200	
업소록 광고비 신동국 (수의 76) 240 모교발전기금 오인환 (문리 63) 125	뉴욕 김명철 (공대 60) 200 배정희 (사대 54) 200 이전구 (농대 60) 1,000 정창동 (간호 45) 75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2,000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200 송재용 (의대 69) 200	휴스턴 진기주 (상대 60) 5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오인환 (문리 63) 100	뉴잉글랜드	워싱턴 DC 권철수 (의대 68) 200 서윤석 (의대 62) 200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 은 모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문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드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7. 7 ~ 2018. 6) ☐ \$150 (2017. 7 ~ 2019. 6) ☐ \$3,000 (종신이사회비)	☐ \$240 (2017. 7 ~ 2018. 6) ☐ \$480 (2017. 7 ~ 2019.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 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한글이름:	영어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 E-mail로만 동창 회보를 받기 원합니다.				
Cell Phone (option):				
주소, 직장, 전화번호 변경 사항 (우측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납부 동문: ?명 / 총회원 ?명

남가주 SCA/NV	양창호 (상대 54) 오양숙 (간호 60) 유덕훈 (상대 48) 유석홍 (음대 66) 유재환 (상대 67) 윤경민 (법대 55) 윤희성 (치대 65) 이건일 (의대 62) 이기재 (사대 52) 이기준 (법대 54) 이소희 (의대 61) 이영일 (문리 53) 이원익 (문리 73) 이정희 (음대 55) 이준호 (상대 65) 이재진 (문리 55) 이흥표 (의대 58) 이휘영 (법대 59) 임동규 (미대 57) 임문빈 (상대 58) 임진환 (치대 68) 전상욱 (사대 52) 정길택 (수의 54) 정상진 (상대 59) 정연웅 (상대 63) 정예현 (상대 63) 조동진 (의대 59) 조순자 (치대 57) 조임현 (간호 72) 최경홍 (공대 60) 최 영 (?) 최동욱 (의대 59) 최재윤 (인문 54) 최준권 (문리 59) 허영진 (문리 61) 홍수웅 (의대 59)	이관모 (공대 55) 이성형 (공대 57) 임정란 (음대 76) 정진수 (공대 56) 최경선 (농대 65) 뉴욕 NJ/NY 강교숙 (간호 73) 강영선 (공대 50) 곽상준 (약대 55) 권문웅 (미대 61) 김동환 (약대 56) 김명철 (공대 60) 김문경 (약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봉련 (사대 54) 김상만 (법대 52) 김성현 (약대 65) 김성호 (공대 71) 김세중 (공대 50) 김영애 (사대 56) 김영일 (약대 58) 김영희 (간호 53) 김완주 (의대 54) 김용술 (상대 56) 김유순 (간호 64) 김윤수 (상대 50) 김은섭 (의대 53) 김중현 (법대 57) 김진자 (간호 60) 김태일 (공대 68)* 김해암 (의대 52) 김현중 (공대 63)* 김희국 (약대 54) 라준호 (공대 48) 맹광호 (문리 71) 문석면 (의대 52) 민발식 (의대 60) 민평갑 (사학 63) 박수안 (의대 59) 박순영 (법대 56) 박영태 (상대 63) 박진우 (상대 77) 방준재 (의대 63) 배명애 (간호 47) 배상규 (약대 61) 배정희 (사대 54) 변해순 (간호 68) 서병선 (음대 65) 선종칠 (의대 57) 성기로 (약대 57) 손갑수 (약대 59)	송영순 (사대 60) 신달수 (공대 59) 양명자 (사대 63) 우대식 (?) 유영호 (의대 52) 유재섭 (공대 65) 윤신원 (의대 50) 윤영섭 (의대 57) 윤인숙 (간호 63) 이대영 (문리 64) 이성근 (의대 60) 이승일 (경영 66) 이영숙 (간호 56) 이전구 (농대 60) 이정은 (의대 58) 이준행 (공대 48) 이태상 (문리 55) 임공세 (의대 61) 장화자 (간호 60) 전성진 (사대 54) 전재우 (공대 61) 정창동 (간호 45) 주공로 (공대 68) 조중수 (공대 64) 차국만 (상대 56) 최수강 (의대 71) 최영태 (문리 67) 한태진 (의대 58) 허경열 (의대 73) 허병렬 (사대 42) 허선형 (의대 64) 홍선경 (의대 58) 홍정표 (음대 67)	달라스 LA/DALLAS 김종원 (의대 66) 박준섭 (약대 63) 유 황 (농대 56) 탁혜숙 (음대 67) 황명규 (공대 61) 룩키마운틴 MT/CO/WY/NM 송요준 (의대 64) 미네소타 MINNESOTA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성욱진 (치대 87) 왕규현 (의대 58) 주한수 (수의 62) 샌디에고 SAN DIEGO 민영기 (치대 61) 임춘수 (의대 57) 전원일 (의대 77) 조두연 (수의 62)	이시영 (상대 46) 이영철 (공대 60) 이윤모 (농대 57) 이종일 (의대 65) 임병훈 (의대 54) 임현재 (의대 59) 장시경 (약대 58) 장영희 (의대 57) 장윤일 (공대 60) 최혜숙 (의대 53) 한의열 (공대 62) 함성덕 (문리 55) 황지룡 (문리 65) 하계현 (공대 64) 아리조나 ARIZONA 지영한 (의대 59) 오하이오 OHIO 김동광 (공대 62) 김용현 (경영 66) 명인재 (자연 75) 송재용 (의대 69) 여준구 (의대 64) 이수자 (공대 62) 장극기 (의대 64) 최인갑 (공대 57)	권철수 (의대 68) 김내도 (공대 62) 김진수 (의대 60) 남춘일 (사대 69) 박일영 (문리 59) 박홍후 (인문 61) 방정화 (의대 61) 백 순 (법대 58) 서기병 (상대 55) 서윤석 (의대 62) 서휘열 (의대 55) 석균범 (문리 61) 송윤정 (인문 89) 안세현 (의대 62) 안승건 (문리 55) 유홍열 (자연 74) 오광동 (공대 52) 오인환 (문리 63) 이문향 (공대 46) 이선구 (인문 65) 이유세 (사대 72) 이재승 (의대 55) 전희순 (간호 76) 조화유 (문리 61) 차임경 (가정 77)	김장환 (공대 81) 박태우 (공대 64) 진기주 (상대 60) 최용천 (의대 53) 필라델피아 PA/DE/S.NJ 강영배 (수의 59) 김희국 (약대 54) 문대욱 (의대 67) 박영한 (약대 68) 송영두 (의대 56) 서재진 (공대 47) 신상재 (수의 59) 심영석 (공대 76) 윤정나 (음대 57) 이규호 (공대 56) 이수경 (자연 81) 전무식 (수의 61) 정정수 (의대 56) 정태광 (공대 74) 조영호 (음대 56) 조화연 (음대 64) 지홍민 (수의 61) 최종무 (상대 63) 최종문 (공대 61) 한인섭 (약대 63)	c테네시 TENNESSEE 김경덕 (공대 75) 하와이 HAWAII 구해근 (문리 60) 김달욱 (사대 55) 손호민 (문리 52) 장광수 (사대 50) 최경윤 (사대 51) 하트랜드 IA/MO/KS/NE/AR/OK 김승희 (법대 55) 백산욱 (문리 51) 임영진 (의대 54) 차동희 (의대 61) 휴스턴 HOUSTON 김태훈 (공대 57) 박석규 (간호 59) 박진섭 (의대 67) 박태우 (공대 64) 유한창 (공대 69) 이찬주 (문리 63) 임순덕 (의대) 진기주 (상대 60) 최성호 (문리 58)
워싱턴주 WASHINGTON 이순모 (공대 56) 이희백 (의대) 홍영욱 (음대 54)								
플로리다 FLORIDA 김재석 (의대 66) 박창익 (농대 64) 안창현 (의대 55) 이재덕 (법대 60)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8) 황현상 (의대 55)								
유타 UTAH 김인기 (문리 58)								
조지아 GA/AL/MS 김순옥 (의대 54) 김영서 (상대 54) 김용진 (문리 48) 오경호 (수의 60) 유성무 (상대 66) 이종석 (의대 54) 임수암 (공대 62) 주중광 (약대 60) 최종진 (의대 63) 허지영 (문리 66)								
캘리포니아 SC/NC/KY 김기현 (문리 52) 마동일 (의대 57) 이범세 (의대 56) 이석형 (사대 56)								
(* 2017~2019) 오선웅 (의대 63)								

제13대 회비, 후원금, 광고비 및 모교발전기금 (6월에 납부)

회비	뉴잉글랜드	후원금	광고
남가주 고석원 (문리 50) 75 박순자 (간호 60) 75 북가주 유두영 (공대 55) 150 뉴욕 김수산 (의대 52) 75 반영철 (약대 54) 75	시카고 이덕수 (문리 58) 75 워싱턴 DC 신용계 (의대 62) 75 권오근 (상대 58) 75 박 철 (공대 57) 75 플로리다 이재택 (법대 60) 75	북가주 박경룡 (약대 63) 75 시카고 이시영 (상대 46) 75 필라 조영호 (음대 56) 75 지홍민 (수의 61) 200	서울대 발전 기금 700 모교발전기금 지홍민 (수의 61) 10,000

제14대로 이전된 기금

Scholarship (정학 기금) = 7,600	나눔 위원회 기금 = 14,125
김은섭 (의대 67) 200 김창원 (공대 49) 5,000 서동영 (사대 60) 500 이근일 (의대 62) 150 임병훈 (의대 54) 50 제영혜 (가정 71) 1,500 유승무 (상대 66) 200	손재욱 (가정 77) 1,000 윤경숙 (문리 59) 3,000 이원섭 (농대 77) 100 하주홍 (상대 77) 25 제13대 미주동창회 10,000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중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5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평의원 회비 납부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지부	직함	이름	회비	뉴욕	평의원	박상원 (음대 69)	100	시카고	평의원	구영자 (간호 69)	100	필라	평의원 (위임)	김경희 (가정 71)	100
남가주	평의원	김경애 (미대 83)	100	뉴욕	평의원	신용남 (농대 70)	100	시카고	평의원	박장열 (공대 60)	100	필라	평의원	김정현 (공대 68)	100
남가주	평의원	김기형 (상대 75)	100	뉴욕	평의원	유시영 (문리 68)	100	시카고	전 미주동창회장	이용락 (공대 48)	100	필라	평의원	김현영 (수의 58)	100
남가주	동창회장	김병연 (공대 68)	100	뉴욕	전 미주동창회장	이전구 (농대 60)	100	시카고	평의원	한경진 (상대 59)	100	필라	총신이사	서종민 (공대 64)	100
남가주	전 미주동창회장	박윤수 (문리 48)	100	뉴욕	평의원 (위임)	이희만 (간호 70)	100	시카고	평의원	한재은 (의대 59)	100	필라	전 미주동창회장	손재욱 (가정 77)	100
남가주	총신이사	박종수 (수의 58)	100	뉴욕	평의원 (위임)	정해민 (법대 55)	100	오하이오	평의원 (위임)	김동광 (공대 62)	100	필라	평의원	이성욱 (가정 74)	100
남가주	평의원	성주경 (상대 68)	100	뉴욕	평의원 (위임)	조정현 (수의 58)	100	오하이오	평의원	김용현 (상대 59)	100	필라	평의원 (위임)	지재원 (사대 68)	100
남가주	평의원	유혜연 (음대 79)	100	뉴욕	평의원 (위임, 임원)	허유선 (가정 83)	100	DC	평의원	박평일 (농대 69)	100	필라	평의원	최정웅 (공대 64)	100
남가주	평의원	이서희 (법대 70)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고일석 (보건 69)	100	DC	평의원	안선미 (농대 65)	100	필라	평의원	황선희 (공대 74)	100
남가주	총신이사	제영혜 (가정 71)	100	뉴잉글랜드	총신이사	김문소 (수의 61)	100	DC	전 미주동창회장	오인환 (문리 63)	100	하트랜드	평의원	구명순 (간호 66)	100
남가주	평의원	조종훈 (의대 57)	100	뉴잉글랜드	현 미주동창회장	윤상래 (수의 62)	100	DC	평의원	정원자 (농대 62)	100	하트랜드	평의원	김경숙 (가정 70)	100
남가주	총신이사	한귀희 (미대 68)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이강철 (공대 76)	100	DC	평의원	주기숙 (수의 68)	100	하트랜드	평의원	김명자 (문리 62)	100
남가주	평의원	한효동 (공대 58)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이영민 (사대 74)	100	DC	평의원	한정민 (농대 87)	100	하트랜드	평의원	김재권 (사법 68)	100
남가주	평의원	홍선례 (음대 70)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이의민 (공대 68)	100	DC	평의원	함은선 (음대 77)	100	하트랜드	총신이사	이상강 (의대 70)	100
북가주	평의원	최경선 (농대 65)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이정수 (공대 71)	100	워싱턴주	평의원 (위임)	김아라 (경영 10)	100	각 지부 평의원께서는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전 동창회장	김도명 (농대 70)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정선주 (간호 68)	100	조지아	평의원	주중광 (약대 60)	100				
뉴욕	평의원 (임원)	김원영 (미대 81)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정정욱 (의대 60)	100	조지아	평의원	허지영	100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nic.com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팔영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자들과 현지 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US이슈투어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IT 국장: 김병국 (공)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편집 위원: 곽세홍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위원장: 김정현 (공)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고병철 (법), 김일훈 (의),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함은선 (음)
SNU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록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박영철 (농)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성주경 (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Feb-Jan
	차기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3801	gamkocpa@hot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 (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달라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eko@gmail.com	Jan-Dec
몬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운 (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정석 (공대 87)	858-243-3254	jslee029@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한경진 (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 (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mrmsft@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 (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박해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조동건 (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Jul-Jun
	차기회장	정지영 (법대)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제14대 미주동창회 집행부
(회장 윤상래)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휴스턴 태풍 피해 동문 돕기 모금 캠페인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 여러분,

8월 25일 휴스턴을 강타한 태풍 할비는 6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휴스턴 지역의 15가구 이상의 서울대 동문님들도 정부가 지정한 곳이나 모텔 등에서 머무시며 홍수 보험을 들지 않아서 턱없이 부족한 재정으로 집이 복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휴스턴 지부에서는 동문님들을 돕기위해 \$7,000을 모금했습니다.

미주 동창회 나눔 위원회에서도 \$50,000을 11월 말까지 모금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거울이 오기 전 11월 말까지 전미주 동문을 대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 Payable to: SNUAA USA
- 주소: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 마감일: 11월 30일
- 메모: 참고난에 “휴스턴 태풍 피해 돕기”로 표기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대인은 서울대 동문이 먼저 도움시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나눔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제14대 미주동창회 회장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죠?

결혼해 듀오

DUO USA (LA) 3000 W. 6th Suite #317 LA, CA 90020

듀오
LA 213-383-2525
NY 212-947-2525

KISS®

“성장하는 기업”

25년간 세계 정상 of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

KISS® KISS PRODUCTS, INC.,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 www.KISSusa.com